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지대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영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보수)에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어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명동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태도 양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243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b>마</b>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b>타</b>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b>자</b>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b>파</b>
광주 062,609,1300	<b>바</b>	<b>아</b>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6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5,2580	평택 031,651,7701
<b>나</b>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b>하</b>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b>차</b>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2016년 9월호 YWCA Vol.533

**이달의 생각**  
 나비가 되고 싶은 94세, Y의 꿈

**기획**  
 2016 YWCA 전국회원대회

**성평등**  
 무엇이 교회를 성폭력 취약구조로 만드는가

**이달의 현장①**  
 제9회 한일YWCA협의회



# 여성독립운동가 황에스더 - 내 집과 내 강토를 내 손으로 건설하겠다



왼쪽부터 황에스더, 최용신, 김활란(최용신기념관 제공)

황에스더(황애덕·황애시덕 1892~1970)는 여성독립운동가이자 농촌계몽운동가였다. 나라 안팎에서 구국운동을 실천한 것은 물론 ‘여성’ ‘주체’ ‘기술’ ‘독립’의 수식어를 부각시킨 인물이다. 송의여학교 비밀결사대를 조력했던 교사,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발족한 여성, 일본 도쿄 28독립선언 현장의 청년학생, 그리고 민족해방 의지를 다지며 3·1만세운동을 외쳤던 독립운동가,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 회장으로 활동하며 조국독립의 절실함을 외쳤던 선구자였다.

농촌계몽운동, 직업기술 교육에도 앞장섰다. 1928년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뒤 협성신학교 농촌사업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당시 농촌운동을 주도하던 YMCA, YWCA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농촌운동에 불을 댕겼다. 이때 최용신이 황에스더에게 감화를 받아 일생을 농촌운동에 헌신하게 된다.

김필례, 김활란이 최초로 YWCA 창립을 추진할 때 같은 목적을 가졌던 유각경, 신의경을 포함한 교육받은 여성들과 함께 참여해 YWCA 조직을 주도했다. 황에스더는 1924~25년까지 제4대 YWCA 회장을 지냈다. 해방 후 여성단체를 총망라한 여성단체총연합회를 구성해 초대 회장을 맡았고,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고국 재건에 힘을 보탰다. “무너진 내 집과 내 강토를 내 손으로 건설하겠다”고 외쳤던 여성독립운동가 황에스더. 그는 시대 한계에 당당히 맞서며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선각자이자 개척자였다.

※ 2016년 78월호 ‘황에스더 제4대 회장’은 제7대 회장으로 바로잡습니다.

2016. 9

## 한국YWCA



### 표지이야기

2016 YWCA 전국회원대회의 다양한 순간을 담았습니다.

### 2016년 9월 한국YWCA 주요일정

#### 9월 5일

NCS 1차 워크숍

#### 9월 21일~22일

2016 통합실무정책협의회

#### 9월 23일~24일

돌봄임원 워크숍

#### 9월 27일~28일

전국증경회장 모임

### 제52권 제7호 통권 533호

2016년 9월 26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백혜진·신선·정란·정선경

조한나·이경순·최수경·황혜숙

편집 박은실·신미희·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_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목 차

04 **이달의 생각** 나비가 되고 싶은 94세, Y의 꿈 | 조은영

05 **말씀 묵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 송기성

### 2016 YWCA 전국회원대회

06 **기획①** 전국회원대회 현장 | 편집실

08 **기획②** 사진으로 보는 전국회원대회 | 편집실

12 **기획③** 전국회원대회 참가기 | 편집실

18 **기획④** 전국회원대회 수상자 | 편집실

22 **청년** 소풍 삼아 놀러갔다 탈핵과 평화를 꿈꾸게 되다 | 정준영

24 **성평등** 무엇이 교회를 성폭력 취약구조로 만드는가 | 이은혜

26 **이달의 현장①** 제9회 한일YWCA협의회 | 장미란

29 **이달의 현장②** 여름방학에 펼친 청소년 탈핵캠페인 | 편집실

30 **이달의 현장③** 2016 히로시마 순례 | 문윤희

32 **이달의 현장④** YWCA 사회복지기관 직원연수 | 김태연

34 **원로에게 듣는다** 최숙자 부산YWCA 증경회장 | 편집실

36 **세계YWCA** 미국 휴스턴YWCA 탐방 | 김은영

38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여성의 생애, 영화로 말하다 | 조진화

41 **연합회 소식**

45 **회원YWCA 소식**

54 **9월의 한국YWCA**

## 나비가 되고 싶은 94세, Y의 꿈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올해로 Y는 94세를 맞이했다. 오래된 그녀의 몸체와 움직임은 안락하고 익숙하며 우아하다. 하지만 간혹 생각한다. 더 좋은 것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부터 뭔가 새로운 형태와 모양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이대로 건디기는 어려울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100세가 되면 이 껍질을 깨고 나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다. 나비가 된다면... 나비가 되려면... Y가 나비가 되는 꿈은 청년 Y로의 부활일지도 모르겠다.

Y는 청년인가? 역사 속의 Y는 청년이다. 94년 동안 수많은 청년이 세상 속에서 Y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헌신했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며 운동과 사업을 통해 조직을 확장하는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그 성장의 끝에서 질적으로 더 자라나지 못해 자성하고 조직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공동체 주체이자 구성원 측면에서 지금의 Y는 청년인가? 아니다. 회원공동체 Y의 회원 중 청년회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며 리더십의 절대다수는 청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청년'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육체가 '젊은이'가 아닌 '청년의식'이라고 위로하며 우리 청년성은 건재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일하고 있는 내용, 과정, 방식에서 지금의 Y는 청년인가? 일부는 청년이고 일부는 아니다. 급변하는 세

상에서 변화를 피하고자 노력하는 조직으로서 Y는 여전히 성장 중인 청년처럼 보인다. 대다수 운동과 사업은 내용, 속도, 실행방식에서 노련하고 성숙하나 그에 따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체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환골탈태할 것인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기존 방식으로 청년이 들어오지 않고, 청년이 많지 않으니 청년을 알지 못하고, 청년다운 조직이 아니어서 청년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식의 자가당착에 빠질 뿐 이는 해결책이 아니다.

먼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청년들의 방식으로 바꾸자. 유연하고 활기차며,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틀을 깨며 나아갈 뿐 아니라 실패해도 배우고, 매사가 새롭고 기쁜 방식으로 바뀌보면 어떨까. 행동이 바뀌면 일의 내용과 속도가 바뀔 수 있다. 더불어 공동체 전체의 활기가 달라지며, 우리 스스로 새 힘을 얻고 그 소리 없는 파장과 에너지가 퍼져나가 그런 활기를 가진 청년들이 Y에 관심을 갖고 돌아오지는 않을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17)”

젊은이가 보는 비전은 그저 꿈으로 끝나지 않고 꿈을 목표로 바꾸고 이루는 것이다. 94세의 Y, 우리가 나비가 되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스스로 일하는 과정과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내부에서 껍질을 뚫고 나오는 몸부림에서 시작해야 한다. 🦋

##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도행전 27장 22절~24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송기성 정동제일교회 담임목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며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희망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희망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기대하신다.

사도행전 27장에 따르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다. 사도 바울의 배가 파선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어 절망 속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故 강영우 박사는 열네 살에 실명 장애인이 되었지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2013)라는 유고작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실명을 통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고백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을 역전시키셔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희망의 메신저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환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분이라고 전한다. 우리 사는 세상이 절망 골짜기일지라도 소망의 문에 여시는 하나님과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도 절망 가운데 있었으나 천사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이르렀다. 희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희망 창조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나는 희망을 던진다>(2010)의 작가 오스틴 구트와 인은 아홉 살 때 월드비전 동영상 보고 잠비아의 에이즈 고아를 도움 방법을 찾았다.

농구 자유투 한골 당 1달러의 후원금을 받기로 하고 총 2057개를 기록하였고 17개국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한 결과 잠비아에 학교와 에이즈 진료소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희망의 링'이라는 구호단체가 생겼다. 그는 희망 세상을 만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희망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절망을 넘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YWCA가 되기를 축원한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희망 세상을 창조해나갈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축원한다. 🦋

# “차별, 폭력, 불안을 넘어 평등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편집실

## ■ 우리는 왜 다시 경주에 모였는가

“YWCA는 생명의 바람으로 시대부름에 응답하여 오늘 희망세상을 만듭니다.” 전국 52개 YWCA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2016 YWCA 전국회원대회가 ‘희망 세상’을 향한 10만 회원들의 뜻을 다짐하며 막을 내렸다.

한국YWCA연합회가 8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1박2일간 경북 경주시 더케이경주호텔에서 개최한 전국회원대회에 참가한 회원대표들은 “정의, 평화, 생명의 세계 시민이 되겠다”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결의했다.

“YWCA, 희망 세상을 만듭니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전국회원대회에는 52개 YWCA 청년·돌봄·다문화 회원을 포함한 대표 1천여 명과 일본YWCA 회원 등 1,111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94주년을 맞은 YWCA는 창립 직후부터 회원들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전망을 배우는 다양한 회원행사를 열어왔다. 1999년 경주 회원대회를 모체로 지금 모습으로 발전한 전국회원대회는 2011년 연합회 법인화 이후 기존 전국대회가 법인 총회와 회원대회로 분리하게 되었다.

그 시작으로 2012년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서울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전국회원대회를 열었다. 2016년 다시 경주에서 모인 전국회원대회를 통해 YWCA는 앞으로 4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 ■ 이희호 여사 “설립이념 지켜야 희망세상 만든다”

8월 23일(화) 아침 일찍 비행기로, 버스로, 자동차로 출발한 회원들은 메신저 등으로 이동 소식을 전하며 설레임을 나누었다. 오전부터 전국에서 회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 여는 예배로 전국회원대회 막이 올랐다. 대전·부산·순천YWCA합창단으로 구성된 회원Y 연합합창단 특송이 회원들의 만남을 축하했다.

대회장인 이명혜 연합회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다. 이 회장은 환영사에서 “섬김과 나눔, 돌봄과 살림 정신을 실천해온 YWCA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기면서 새롭게 세상의 되길 결단하고자 한다”고 선포했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데보라 토마스오스틴 세계YWCA 회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왔다.

YWCA 원로선배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지도자인 이희호 이사장은 “회원들이 설립이념을 지켜야 희망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서 “10만 회원이 한뜻으로 사회에 필요한 사명을 품고 100년을 향한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1959년부터 1962년까지 YWCA(당시 대한YWCA연합회) 총무로 활동했고, 이후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적극 뛰어 들었다.

열정과 헌신으로 YWCA 발전을 위해 애쓴 320여 명의 자원활동가·실무활동가·기관 등을 격려한



2016 YWCA 전국회원대회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주시 더케이경주호텔에서 열렸다.



‘YWCA상’ 시상식과 94분 토크쇼로 이뤄진 감사 한마당(진행 주철환 아주대 교수), 지역별 활동나눔과 영성으로 하나된 나눔 한마당(진행 이천진 한양대학교 교목실장). 세대와 지역의 소통을 통해 희망을 찾는 비전 한마당(진행 조은영 연합회 실행위원)까지 오랫동안 회원들과 준비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 ■ 청년들 최대 참가

이번엔 어느 때보다 많은 청년 회원들이 참여했다. 전체 참가자의 13.5%인 150여 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참가해 YWCA 94년 역사를 이뤄낸 선배들과 함께 YWCA 희망을 이야기했다.

‘젊은(Young) 운동체’를 지향하는 YWCA 정신을 실천하고, 청년성을 회복하는 청신호이자 지역과 세대를 잇는 YWCA운동의 현장이 되었다.

특히 YWCA는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탈핵’이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결단과 파송’ 시간에 참가자들은 전국 10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신고리 5·6호기 건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역에너지 자립을 구현할 것을 결의했다.

세계 최대 핵발전 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인근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더

욱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감사 한마당과 나눔 한마당 사이에는 참가자들이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 파랑(평화), 노랑(정의), 빨강(하나님 나라), 초록(생명)의 색상카드를 들고 ‘Y.W.C.A’ 대형글자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카드섹션을 펼쳤다.

청소년·청년활동 후원을 위한 ‘플라워버킷’ 현장모금과 티셔츠·기증소품 판매, Y-틴이 주관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서명, 수원YWCA 가정폭력 피해회원 모금, YWCA운동 패러디포스터 전시,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소속 사회적기업 우수제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또한, 8월 21일(일)부터 25일(목)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9회 한일YWCA협의회는 양국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한일 여성들이 시민 차원의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국YWCA 전국회원대회 기간엔 일본YWCA 회원들도 주요 일정을 함께 하며 공감대를 넓혔다.

전국회원대회 주인공은 누구보다 기도와 기도로 함께 준비하고, 기쁘게 참여한 1,111명의 회원들이었다. 이번에 결의한 대로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모두가 우리 사회 희망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 4년간 맺게 될 운동의 결실을 다음에 나누길 바란다.



2016 YWCA 전국회원대회  
회원선언

YWCA는 생명의 바람으로  
시대부름에 응답하여  
오늘 희망세상을 만듭니다.

나는  
도전하는 청년정신으로  
차별을 넘어 평등한 세상,  
폭력을 넘어 존중하는 세상,  
불안을 넘어 안전한 세상을 일구는  
정의, 평화, 생명의  
세계 시민이 되겠습니다.





## 지역, 세대를 잇는 만남과 나눔

52개 회원YWCA 청소년·청년·돌봄·다문화 회원과 일본YWCA 회원 등 1,111명이 참석한 2016년 전국회원대회는 YWCA 목적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다짐과 화합의 장이었다. 지역과 세대를 잇는 만남과 나눔의 참가기를 실는다.

### 경기지역 성 평등 사회를 향한 열정



사무총장 회원담당자 회의를 거쳐 기획부터 모든 회원 YWCA가 협력하여 준비했다. 회원YWCA마다 한마음으로 모여 흥겹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안산YWCA가 준비한 낭독원고, 안양YWCA 평생회원인 CCM 가수 윤니나씨 재능기부로 만든 MR(음악반주), 수원YWCA와 안양YWCA 청년들의 개사곡, 모든 YWCA 회원담당 간사들이 참여회원들과 울동을 연습하는 등

‘성 평 등’ 주제를 맡은 경기지역은 세 번의 사무총장협의회와 한 번의 지역위원회,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과정 하나하나가 감동과 재미의 시간이었다.

경기지역 활동나눔 1부에서는 12개 YWCA 활동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낭독하고 만장이 입장하며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2부 순서에 많은 공을 들였다. 무대 중앙에는 7080 의상을 입은 회원YWCA 회장님과 회원 한 분이 서고, 양 옆으로 60명의 회원들이 늘어서 영화음악 ‘씨니’ 개사곡에 맞춰 울동을 했는데 호흡이 잘 맞아서 무대에 강한 경기지역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다.

가발부터 의상까지 직접 준비한 ‘발랄한’ 회장님들 덕분에 축제 같은 시간이 되었다. 베스트 드레서로 무대를 빛낸 안양YWCA, 성남YWCA 회장님과 부천YWCA 증경회장님, 씨니 울동지도를 위해 동영상까지 만들어 준 안양YWCA 20대 간사들에게 감사드린다.

### 동부지역 탈핵으로 가는 순례의 길



동부지역이 해야만 하고, 잘할 수 있는 그것, 탈핵운동이 우리 주제였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과 변화가 있었다. YWCA에게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탈핵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한 동부지역 250명의 참가자들이 있었기에 “핵을 반대합니다. 핵을 반대합니다” 합창으로 모아질 수 있던 게 아닐까?

후쿠시마 사고 5주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주

나눔 한마당이라면 누구나 한동안 되뇌게 될 것이고, 추억으로 웃게 될 것이다.

정은경 울산YWCA 사무총장 기인 올해 죽음의 땅으로 남아있는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부지역 나눔활동이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

더불어 지역현안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에 대한 동부지역 YWCA 공동대응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으며 탈핵을 염원하는 우리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는다.

핵발전소가 세워진 곳곳이 동부지역 YWCA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회원 모두가 함께 진 십자가의 길, 그 길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만나고, 서로 힘을 주며, 조금씩 나아지는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된다.

그 소망을 함께 품는 것만으로도 탈핵 세상으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 이미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닐까? 동부지역이 함께 걸기로 한 탈핵생명 세상의 길을 향하여!

### 북부지역 YWCA 평화운동 위해 북부지역이 나서다

북부지역은 북한과 정책으로나 지리상 연관성이 많은 지역이다. 2016년 6월엔 ‘평화기행’을 기획하여 철원을 방문, 평화통일을 위한 북부지역의 역할과 다짐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회원대회 나눔 한마당에서 이런 의지를 담아 ‘평화통일 운동’을 주제로 선택했다. 북부지역은 2015년 5월 ‘국제여성평화걷기’ 당시 제작한 평화의 색동조각보와 아리랑 노래를 활용한 카드섹션을 준비했다.

다양한 색이 조화를 이루는 색동조각보처럼 분단된 남과 북이 조화롭게 어울릴 그날을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한 노래가 모두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선곡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하였다.

속초YWCA 회장님 반주를 시작으로 원주YWCA 회장님과 동해YWCA 김한나양의 선창에 이은 북부지역의

합창은 아름답게 하나로 어우러지며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선포했다.



한혜선 인천YWCA 부장

1,111명의 회원 앞에 서게 된 북부지역은 많은 떨림과 긴장으로 1절 후렴구에서 카드섹션을 잠깐 놓치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나 2절 후렴구에서는 평화의 색동조각보와 함께 ‘Y 평화운동, 한반도가 하나 되어 통일 한국으로 다시 태어나길, 북부지역이 나섰습니다’라는 카드 섹션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북부지역 역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통일 운동’을 반드시 실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1,111명의 회원 앞에서 할 수 있었다.

### 서부지역 돌봄운동, 우리의 사명

서부지역은 돌봄과 가사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극을 발표했다. 11개 회원YWCA가 모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둔 서부지역은 작은 역할까지 나누어 함께했다.

전주YWCA 돌봄 선생님들과 이사님들, 부속시설 실장, 관장이 세 번의 모임을 통해 스토리를 구성했고, 내가 20대 시절 버들캠핑장에서 YWCA 청년들 대상으로 연극했을 때 연출을 맡았던 양문섭 목사님 도움으로 역할극 연습에 들어갔다.

첫 번째 연습은 박춘자 목포YWCA 증경회장님의 기도로 시작했다. 각 지역에서 모인 출연자들도 기도로 역할극을 준비했고, 연습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YWCA 힘이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습 때마다 이른 아침 첫 차를 타고 전주YWCA 회관으로 출발한 목포YWCA 증경회장님, 대사가 한줄 밖에 없음에도 광주에서 매번 운전해 연습에 참여한 광주YWCA 부장님, 각 지역 이사·위원·간사·청년들 모두 그 귀한 받

걸음이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웠으리라고 생각한다.



김민순 전주YWCA 부회장

나눔 한마당 공연이 끝나고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서로에게 감사 인사와 수고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전국회원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게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벅차오름을 체험했다.

이번 돌봄 역할극을 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에 많은 가사노동자가 필요한 현실에서 YWCA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앞으로도 YWCA 돌봄운동에 계속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부지역 청소년과 함께 걷어가는 YWCA



중부지역이 제비뽑기로 뽑은 주제 '청소년은 우리를 매우 난처하게 했다.'

청소년 당사자들의 활동나눔 시간은 따로 있고 우리가 표현할 청소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또한 우리가 하는 청소년 활동이 정말 그들이 원하고, 그들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청소년'이라는 주제를 우리 시선으로 나타내는 것은 난처한 일이었지만,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그대로를 표현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스킷드라마로 청소년들이 사회와 부딪치는 현실을 표현하기로 했다. 좌절을 하고 유혹에도 넘어가는 순수한 모습,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가는 열정을 그렸다. 청소년이 YWCA를

신보미 청주YWCA 간사

만나고 그들의 장을 열었을 때 청소년의 주체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중부지역은 많은 고민을 했다. 어떤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들 본연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놀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모습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꼬리잡기 놀이'를 하게 됐다. YWCA를 만나 단단해진 내면으로, 주도적인 모습으로 Y-틴 활동을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표현했다. 마지막에 남은 두 꼬리가 Y를 그리며 청소년이 Y를 바탕으로 본연의 리더십을 기르고 표현하는 이미지로 마지막 장면을 만들었다.

청소년들이 왜 YWCA에 오고가는지는 그들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을 위해 함께하는 YWCA는 앞으로도 청소년 편에서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과 늘 소통하며 그들의 아픔,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다.

Y-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함께하는 희망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크고 중요한 행사라고 알고 있는 전국회원대회에 참가했다. 무엇보다 YWCA 중점과제를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북부지역에서는 통일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1천여 명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주제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다.

둘째 날 비전 한마당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참가한 Y-틴 친구들과 함께 플래시몹을 보여드렸다. 플래시몹과 합창을 하며 Y-틴의 단합도 높일 수 있었고 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를 응원해주는 어른들의 격려를 받으며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전국회원대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일본YWCA 요시무라 치

곽민주 Y-틴 북부지역 회장, 서울 YWCA



에 부회장님의 '희망을 잇다'라는 강연이었다. 강연을 들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등 양국 평화를 위한 문제해결에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나에게 큰 경험이 되었고 1박 2일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전국회원대회 때 대학·청년Y로 참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일본YWCA 편지

한국YWCA 전국회원대회에서 도전과 영감을 받다



일본에서 안부 인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던 한일YWCA협의회 회원들의 훌륭한 준비와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일YWCA협의회와 더불어 한국YWCA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YWCA 참가자들에게 크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해준 한국YWCA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국YWCA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미래 안전을 위해 토론한 시간은 일본YWCA 참가자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대회를 통하여 한국YWCA가 그동안 일구어낸 많은 노력의 결실을 성공적으로 전국에 알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국회원대회 참가는 일본YWCA 참가자들에게도 많은 도전과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한국YWCA 회원들, 자원활동가와 실무 활동가들이 보여주신 친절함과 따뜻한 환영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일본YWCA 회장 마타노 나오코  
사무총장 니시하라 미카코

대학·청년Y 'Y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해 미래를 모색하자'

저는 YWCA 회원이 된지 아직 3년도 되지 않아 전국회원대회 참석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모인 다양한 연령대 회원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를 위해 1천 명 넘는 회원들이 경주에 모여 지역활동을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며, 영적으로 하나됨을 느낌으로써 YWCA 공동체 소속감을 더욱 높게 되었습니다.

또한 YWCA 활동성과를 되새기며 모든 회원이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되어주어 짧지만 의미 있던 1박 2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나눔 한마당 청년운동 퍼포먼스 연습시간이 부족해 약간의 실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박수와 환호로 격려해주어 모두가 최선을 다해 마

정하연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 광주YWCA



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재건된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청년' 활동을 나타내기엔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다음 전국회원대회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여 청년이 주체가 되어 YWCA 미래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맞이할 한국YWCA 100주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청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함께 꿈꿀 수 있는 YWCA가 되길 소망합니다!

### 30대 음치인 내가 합창단이 될 수 있던 이유



YWCA는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구였다. 학교와 교회, 집 밖에 모르는 나에게 지역에서 활동가로 이르지 어준 곳이다. 이 곳에서 남편도 만나 결혼을 하고 육아 까지 모든 것이 노래하듯 10년이 지나갔다.

전국회원대회는 나에게 지난 10년의 열정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또다시 10년을 기약하는 자리였다. 이번에 10년 근속상이라는 수상까지 하면서 그동안 배우고, 느끼고, 성장했음에 정말 감사하고 뿌듯하다. 또한 김순영 순천YWCA 증경회장께서 60년 봉사상을 수상해서 더욱 자랑스러웠다. 토크쇼 '허스토리

김정민 순천YWCA 부장 (Her-story)'에서 김순영 증경회장님의 피아노 연주와 이야기 나눔은 참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YWCA는 매년 다양한 기회를 허락한다. 이번 전국 회원대회에서 나는 연합합창단원으로, 10년 근속상을 받는 실무자로, 순천YWCA 정식대표로 참여하였다. YWCA가 아니었으면 음치인 내가 합창단이 될 수 없었고 내성적인 내가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받으러 전국을 돌아다닐 수 없었고, 더 많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꿈꿀 수 없었을 것이다.

잡은 야근으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못함에 가끔은 일탈을 꿈꾸지만, YWCA 생명운동과 여성운동에 다시금 내 마음을 다잡는다. YWCA가 여성운동과 더불어 우리나라 생명사랑공동체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국회원대회는 끝났지만, 우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세상 앞에 한 발 다가가고 있다. 전국 52개 지역에서 다시 시작될 '희망세상'을 꿈꾼다.

### 40대 열심히 활동해 60년 봉사상을 받겠노라



전국회원대회가 처음인 나는 참석하기로 한 그날부터 설렘으로 출발을 기다렸다. 기대감으로 참석한 나는 YWCA 20년에서 60년까지의 봉사상 시상에서 놀라움을 느끼면서 나도 열심히 활동해 60년 봉사상을 받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자원지도자들이 그 수많은 시간 봉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보람과 기쁨이 있기에 가능하다

백민정 대구YWCA 이사 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이 수고와 봉사가 더욱 아름다운 것 같다.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지역별 나눔 한마당에서 YWCA 2016~2017년 주요 과제를 더욱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의식 없던 안산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 남편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YWCA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를 통해 내가 YWCA 일원이라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한층 더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사명이 있음을 알고, 행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하겠다.

### 50대 '나그네에게 건넨 냉수 한 그릇'의 정성

기다리던 전국회원대회가 열린 8월 23일은 매우 감격스러운 날이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에도 참가한 회원들의 열정은 폭염보다 더 강했다. 전국회원대회를 위해 100일 작정기도를 한 기도의 열매인 것 같다.

준비위원회 사무생활분과 위원을 맡은 나는 시상식 준비도 돕고, Y-틴과 대학·청년Y를 위한 모금활동을 지원하면서 더 큰 보람을 느꼈다.

특히 시상식은 자신의 삶을 헌신한 자원활동가와 실무자들에게 감사와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우리도 온 정성을 기울였다. 시상 당일 수상자들은 누구보다 멋지고 아름다웠다. 연합회 50년 근속상을 받은 오남조 권사님은 YWCA 선배들과 함께해온 역사를 나누어주면서 YWCA 자체가 자신의 삶이었노라 말씀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내 마음도 뭉클하였다.

또한 우리 희망둥이인 Y-틴과 대학·청년Y가 '플라워 버킷'으로 모금행사를 하고, 기증품 바자 부스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YWCA 운동은 YWCA 주인인 우리 모두가

### 문권희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 회원 분들이 바자회를 위해 선뜻 내어준 소장품과 정성어린 모금은 '나그네에게 건넨 냉수 한 그릇'과 같았다. 이 기금이 백배, 천배 효과로 Y-틴과 대학·청년Y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100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전국회원대회를 마치면서 자원활동가로서 내 마음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YWCA가 한국 사회의 빛이 되어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 60대 전국 10만 회원의 탈핵 실천의지를 담다

'YWCA, 희망 세상을 만듭니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YWCA 회원들의 큰 축제였다. 이번 시상식에서 10년 근속상을 받은 우미강 동해YWCA 사무총장과 함께 나도 20년 봉사상을 받게 되어 그동안의 헌신과 열정을 서로 축하하며 사랑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YWCA와 일본YWCA 양국 회원들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서로 나눌 때는 뜨거운 감동과 큰 사명을 느꼈다.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핵 없는 사회를 향한 전국 10만 회원들의 실천의지를 표현하는 탈핵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우리 지역 핵발전소 문제도 생각해보았다.

존경하고 든든한 YWCA 선배들의 지나온 역사와 함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진정으로 고맙고 감

### 김래규 동해YWCA 이사



사했다. 전국 청소년, 대학Y 회원들이 땀 흘리며 끼를 발산할 때 밝고 힘찬 미래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참가자 모두가 파랑, 노랑, 빨강, 초록의 색상카드를 YWCA 글자를 만들어 대형 카드섹션을 할 때 10만 회원의 실천의지를 담을 수 있어서 더욱더 감격이었다.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 YWCA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격려하다

## - 돌봄회원대상, 청년대상 신설해 회원활동 축하

### 편집실

2016 YWCA 전국회원대회 '감사 한마당'은 YWCA상 시상식으로 시작했다. 희망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며 헌신으로 봉사한 이사와 위원, 열정으로 근속한 실무활동가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존 전국대회 시상식 전통에 따라 ▲YWCA공로상(공로상, 박에스터상, 문태임상, 돌봄회원대상, 청년대상, 특별상, YWCA대상) ▲감사패 ▲봉사상(60년, 50년, 40년, 30년, 20년) ▲근속상(50년, 40년, 30년, 20년, 10년)를 시상했다.

먼저 정의, 평화, 생명존중 사회를 위해 YWCA와 함께 오랫동안 실천의 길을 걸어온 김숙희 한국YWCA연합회 증경회장과 이행자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장이 'YWCA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두 사람은 연합회 명예연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문태임상

"이 상을 받으실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고 이 상으로 인해 젊은 미래 지도자들에게 격려와 자국이 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다시 없겠다." 고(故) 송재 문태임 명예연합위원과 유가족이 후사한 기금으로 YWCA 발전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자원활동가에게 주는 상이다.

문태임 위원은 1988년 연합회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한국YWCA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지도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사재를 털어 기부했다. 제1회 수상자는 1947년 미국YWCA에서 돌아와 한국YWCA의 현대적 성장기반을 닦는데 크게 기여한 박에스터 선생이었다. 올해 문태임상은 임국이 대전YWCA 증경회장과 홍기자 전주YWCA 증경회장이 수상했다.

#### 박에스터상

"여성들에게 생에 대한 의의를 찾도록 도와주고 많은 여성 지도자가 요청되는 이때에 지도력을 양성하는 일에 주력하자."

박에스터상은 고(故) 박에스터 선생의 지도력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돼 YWCA 발전을 위해 공을 세운 실무활동가에게 주는 상이다.

박에스터 선생은 다음 세대를 위해 YWCA회관 확보와 지도력을 양성하며 한국YWCA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데 헌신하고 시대와 사회를 섬기는 여성지도자였다. YWCA를 사회단체로 발돋움하는데 큰 공을 세운 박순양 고문총무가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 박에스터상은 박영선 전주YWCA 사무총장, 이명자 전주YWCA 사무총장이 수상했다.

#### 돌봄회원대상

YWCA 주인은 회원임을 확인하고 천명하는 뜻으로 '회원대상'을 신설했다. 그중 한국YWCA 돌봄운동 50주년 기념으로 제정된 제1회 '돌봄회원대상'은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과 서울YWCA 돌봄회원봉사단에게 돌아갔다.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은 2012년 한국YWCA가 협동조합 시범YWCA로 부천YWCA를 지정하며 긴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설립됐다. YWCA 최초로 돌봄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을 설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YWCA 돌봄회원봉사단은 1966년 돌봄사업을 시작으로 돌봄의 다양한 영역을 만들어가며 YWCA 돌봄운동의 역사가 되고 있다.



문태임상 받은 임국이(왼쪽), 홍기자(오른쪽)

박에스터상 받은 박영선(왼쪽), 이명자(오른쪽)

돌봄회원대상 받은 부천YWCA돌봄과살림협동조합(왼쪽), 서울YWCA돌봄회원봉사단(오른쪽)

YWCA 정신을 기리며 삶으로 실천하는 자원활동가에게 수여하는 '문태임상'은 임국이 대전YWCA 증경회장, 홍기자 전주YWCA 증경회장이 각각 받았다. 또한 같은 취지로 실무활동가에게 수여하는 '박에스터상'은 박영선 전주YWCA 사무총장과 이명자 전주YWCA 사무총장이 각각 수상했다.

YWCA 발전에 크게 공헌한 지도자에게 주는 '공로상'은 김은경 YWCA복지사업단 이사와 이종경 한국YWCA연합회 전 사무총장이 각각 수상했다.

#### 탈핵운동 앞장선 부산YWCA, 특별상 수상

2016년 YWCA공로상에서는 모든 회원활동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담은 '회원대상'을 신설했다. 올해로 50년을 맞은 한국YWCA 돌봄운동을 기념해 '돌봄회원대상'을, 2010년 이후 중단된 지 6년만에 올해 초 재건된 대학·청년Y 발전과 YWCA 청년성 회복을 격려하기 위해 '청년대상'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과 1966년부터 돌봄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해온 서울YWCA 돌봄회원봉사단이 '돌봄회원대상'을 각각 받았다. 우리 사회 돌봄이 필요한 곳을 찾아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돌봄활동은 한국YWCA 중점사업이다.

젊은(Young) 운동체를 지향하는 YWCA 정신을 실천하며 대학·청년Y 회원활동의 기초를 닦는데 기여한 손지수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과 김광식 청주YWCA 대학·청년Y협의회 회장이 '청년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150 여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참가해 세대와 나이를 뛰어넘어 '청년이 주체가 되고 연대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청년대상' 신설의 뜻을 더했다.

한국YWCA 중점운동인 탈핵운동을 전국 회원들이 펼쳐갈 수 있도록 애쓴 부산YWCA는 '특별상'을 받았다. 회원YWCA에서 가장 먼저 탈핵운동을 시작한 부산YWCA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탈핵운동에 뛰어들었고, 고리1호기 폐쇄를 주도하는 등 YWCA 탈핵운동 전국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YWCA 생명운동, 소외지역 아동보육, 청소년교육, 돌봄활동을 꾸준히 지원해온 기업과 기관에 대한 감사로 4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30여개 회원YWCA 청소년금융교육과 다문화청소년 교육을 10년 넘게

지원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 돌봄회원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 후원한 KB손해보험, 소외지역 아동보육을 위한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굿모닝미인카드 수익금 지원을 통해 생명운동을 후원한 NH농협은행 명동지점이 감사패를 받았다.

YWCA 목적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원활동가들과 실무활동가에게 수여하는 ‘봉사상’과 ‘근속상’ 시상식도 이어졌다. 시간과 재능, 물질 자원도 아낌없이 지원하는 자원활동가들의 헌신은 YWCA를 받치는 든든한 기둥과도 같다. 60년 봉사상 3명, 50년 봉사상 12명, 40년 봉사상 32명, 30년 봉사상 54명, 20년 봉사상 107명 등 모두 208명 ‘봉사상’을 받았다.

시만단체의 힘든 여건에서 실무활동가로 오랜 시간 근속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50년간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버들캠프장을 지켜온 이은호 관리장이 50년 근속상을, 연합회 주방에서 맛있고 따뜻한 식사를 맡아온 오남조 권사님이 40년 근속상을 받았다. 이밖에 30년 근속상 6명, 20년 근속상 36명, 10년 근속상 189명 등 모두 233명이 ‘근속상’을 수상했다.

YWCA는 ‘사람’이다. YWCA 정신은 삶의 현장에서 YWCA 목적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대상 수상소감

“어른들이 보여준 삶의 본에 순종했습니다”

김숙희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제가 이화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김활란 선생님을 뵈었고 이후 박마리아 선생님, 김신실 선생님, 김애마 선생님, 김정옥 선생님, 최이순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YWCA에서 일할 때 묵묵히 사무실을 지키시던 박에스터 선생님, 박순양 총무님 다 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또한 김영삼정부 시절 교육부장관을 지내면서 대통령께도 많이 뵈었습니다. 제가 YWCA 대상을 받으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어른들께서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YWCA 회원들이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3년의 봉사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행자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경기 여고 1학년 때 YWCA와 인연을 맺고, 1973년 서울YWCA 국제친선부 위원으로 시작해 8월에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장직을 마무리합니다. 청소년, 소외된 이웃, 불우한 여성을 위한 YWCA,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YWCA를 위해 저는 열정과 기쁨으로 43년 동안 헌신 봉사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고 보람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은혜스럽게 마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긴 세월 서로 격려하고 함께해온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친구들과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하며 부족한 제게 영광스러운 대상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 주시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리라 다짐하며, YWCA를 위해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대상 수상소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겸손히 일하겠습니다”

손지수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



우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크고 과분한 상을 주신 YWCA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국회원대회 수상자들을 직접 뵈니 정말 오랜 시간동안 YWCA를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YWCA에서 활동한 기간도 짧고 부족한 점,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평생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그것을 터트릴 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무리해서 시간을 앞당기려 하지 마라.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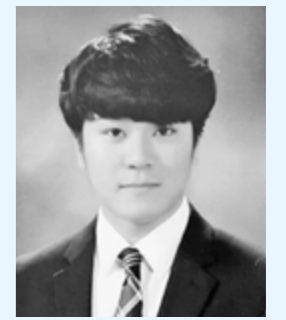
지금은 청년들의 목소리와 활동이 미약하지만 청년들이 YWCA에서 희망을 안고 새롭게 시작할 때 선배님들이 지지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터트려주실 그 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희망세상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게 이 상은 수고의 뜻이 아닌 앞으로 대학·청년Y를 잘 이끌어 나가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YWCA에서의 경험과 소중한 사람들은 제 삶을 바꾼 존재며, 저도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YWCA 희망인 청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겸손히 일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희망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김광식 청주YWCA 대학·청년Y협의회 회장



청년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학생 시절 우연히 만난 Y-틴이 지금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YWCA에

서 청소년 인권운동, 평화운동, 탈핵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다. 흙수저, 금수저를 나누며 서로 편 가르게 하고, 삼포세대, 칠포세대 등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포기해야만 살 수 있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평화포럼,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청주YWCA 청년활동 등에서 만난 YWCA 청년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YWCA에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품어내고 이겨내며, 희망의 불씨를 이어나가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YWCA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청년Y에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아까워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믿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청년Y가 좌절에도 일어날 수 있고 희망세상을 만들어갈 것임을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청년예수의 청년성을 잃지 않으며, YWCA 운동체로서 더욱 성장하는 대학·청년Y가, 그리고 제가 될 것입니다.

# 소풍 삼아 놀러갔다가 탈핵과 평화를 꿈꾸게 되다

정준영 한양대YWCA 동아리 '다솜' 회원, 안산YWCA



## 탈핵 주장엔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우연한 계기로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에 참가하게 되어 처음엔 그냥 소풍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참여하기 전 나는 이번 주제가 탈핵이고, YWCA 주요활동 중 하나가 탈핵운동인 줄은 알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탈핵을 왜 해야 하는지 몰랐다.

‘후쿠시마 사태는 단지 리히터 규모 9도 지진이 불행하게도 원전 근처에 쓰나미를 일으켜 일어난 사태’쯤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오히려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첨단 문명이 주는 혜택 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을 거부할 수 있을까?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같은 의문을 품으며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소풍 삼아 놀러갔던 부산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통해 핵발전이 대한 생각을 근본으로 바꿀 수 있었다. 나는 핵발전의 위험보다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째 날 기조강연에서 탈핵을 위해 현재 어느 정도의 화석연료 발전은 불가피

하다고 말한 김해창 교수의 얘기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다.

물론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훨씬 적게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놓고도 가동하지 않는 현실은 답답했다. 그래도 ‘지구온난화 문제에도 당분간 어느 정도의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핵발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여 보고 싶었다.

다음날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의회가 진행됐다. 일본 친구들로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삶을 듣고, 한국의 원전 현황을 들으면서 핵발전이 생각보다 위험하고 우리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핵발전이 정부가 선전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어서 고리원전 주변과 신고리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고리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고리원전 건설부지로 선정되어 철거되는 마을을 둘러보면서 그 주위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방사능에서 안전하지 않은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어야 하는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웠다.

이어서 고리원전 주변과 신고리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고리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고리원전 건설부지로 선정되어 철거되는 마을을 둘러보면서 그 주위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방사능에서 안전하지 않은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어야 하는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웠다.

## 불편과 비용을 감당하는 게 탈핵의 첫 걸음

견학을 통해 핵발전은 환경적으로 유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존중한다면 재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이 사용된 바닷물을 담수화해 인근 주민들에게 수도물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강행할 수 있을까?

산업용 전기는 OECD 최저 수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가정용 전기에는 살인적인 누진제를 시행하는 정부를 보며 ‘과연 핵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고민했고, 결국 핵발전 논리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환경살림과 어울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거기엔 오직 탐욕스러운 자본의 이익과 차가운 경제적 계산만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핵발전은 결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대가로 치러 얻은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암울한 현실을 뒤로하고 우리는 마지막 날 산청 민들레학교에 갔다. 산청 민들레학교는 자급자족을 모토로 하는 대안학교였고, 나는 그곳에서 탈핵

의 가능성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본 것은 불편하고 부족한 삶이었다. 역시 전기 없는 삶은 힘들고 익숙하지 않았다. 물 없는 화장실, 가스 없는 조리도구, 콘크리트 없는 건축물, 에어컨 없는 건물 내부까지 모든 것들은 참 불편해 보였다. 거기서 난 우리가 외치는 탈핵이 과연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뤄내야 할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탈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탈핵의 첫 걸음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번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목적 중 하나는 한일 청년들의 교류와 이해증진이었는데, 두 나라 청소년과 청년이 모인 곳에서 자연스럽게 탈핵을 넘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리를 생각할 수 있었다. 오키나와 조선인 징용피해자를 기리는 ‘한의 비’를 소개하면서 과거 일본의 잘못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본인 친구들, 2차 세계대전 당시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일본YWCA 사과문을 접하며 나는 동아시아 평화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핵발전이 무관심했던 내가 얼마나 순진하고 무책임했는지를 깨닫고, 탈핵뿐 아니라 평화를 꿈꿀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나가사키 피폭 3세인 일본인 친구를 만나고 고리원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핵문제가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손지수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회장, 대구YWCA)

한일 역사관계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일본 청년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친구가 되니 그런 선입견 같은 것이 없어졌어요. (선슬기 여수YWCA 대학청년Y)

해운대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부산 KBS, MBC, KNN 등 여러 언론사가 취재하러 왔어요. 탈핵을 바라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릴 수 있어 기뻐요. (김민아 청주YWCA Y-팀)

탈핵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인천YWCA 친구들에게 탈핵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요. (문현삼 인천YWCA 대학청년Y)

참가자 한줄 소감

# 무엇이 교회를 성폭력 취약구조로 만드는가

이은혜 뉴스앤조이 기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목사’를 입력하면 먼저 뜨는 연관 검색어 ‘목사 성추행’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목사가 여성에게 성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리 놀라운 뉴스가 아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문직 종사자 성범죄는 총 3,050건. 그중 성직자가 일으킨 것은 442건으로 전문직 1위다.

뉴스앤조이는 2000년 창간 이후 성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를 꾸준히 고발해왔다. 기독교 언론이 굳이 목사의 잘못을 알리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많았다. 기독교만 욕을 먹인다는 비난에도, 아프지만 씩고 굶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다. 그동안 뉴스앤조이가 취재해 보도한 기사를 분석해 보면 다른 직업군보다 왜 목사가 성폭력에 취약한지 알 수 있다.

## ‘교회’라는 특수성

교회는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곳이다. 한국 교회는 유독 목사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다. 목사는 자신을 ‘주의 종’,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라고 부른다. 설사 자신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일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잘못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목사를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했다.

권위 의식에 사로잡힌 목사, 목사의 말에 세뇌된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스레 상하복종 관계가 형성된다. 교인들은 목사 말이면 무조건 복종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특히 목사가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등 신비 사역이 주된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곳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에게 절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목사는 말씀으로 권위를 세운 후 ‘목양’이라는 이유로 교인을 만난다. 일대일로 만나는 경우도 다반사다. 목사는 영적으로 우위를 점명한 상태에서 여성 교인에게 상담, 기도, 치유를 해주겠다고 다가선다. 목회자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정신적으로 교인을 구속한 상태다. 힘의 불균형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자세히 들여보면 폭력과 위협보다는 이런 힘의 불균형 상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은혜가 안 된다”는 무서운 말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여성 교인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치자. 이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 주로 장로들 귀에 먼저 들어간다. 한국 대부분 교회에는 ‘당회’라는 것이 있다. 교인들이 직접 뽑은 장로와 담임목사로 구성된 교회 최고 운영위원 기관이지만, 사실상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다.

당회는 담임목사의 범죄 사실을 들어도 피해자보다 담임목사 편에 선다. 담임목사의 성폭력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면 교회가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는 ‘덕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성이 장악하고 있는 당회는 피해자인 여성을 먼저 위로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선 남성인 목사와 교회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피해자들은 잇을 수 없는 협박을 듣는다. ‘담임목사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는 것이다’, ‘사탄이 당신을 이용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있다’, ‘솔직히 당신에게도 잘못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종류의 협박은 교인 즉 하나님을 믿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폭력이다. 피해자는 성적으로 학대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영적으로도 학대받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


남성들이 목사와 교회 이름을 걱정하는 동안 교회 내 여성들은 무엇을 할까. 아쉽게도 교회 여성 중에서도 피해자 편을 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목사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목사님 홀린 꽃뱀 같은 여자’,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신실하신 우리 목사님이 넘어갈까’, ‘돈 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등등 사실과 다른 말이 입소문을 타고 뻗어 나간다. 이는 위

에서 설명했듯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목사라는 ‘사람’을 떠받드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비롯된다.

## 그렇다고 계속 가만히 있을 것인가

지난 8월 뉴스앤조이가 보도한 이동현 목사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보도 이후 이 목사에게 정신적으로 조종당하고 성적으로 학대당한 A는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담담하게 편지로 써서 제안했다. 이 제안은 하루아침에 똑딱 나온 것이 아니다. A는 해외에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것, 앞으로 목사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 교회의 대처 방안 등을 쓰고 또 쓰며 고쳐 나갔다. A의 제안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목회자에게 상처 입은 많은 여성들은 적절한 대처, 상담, 치료를 받지 못해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고 있다. 해를 가한 목사는 면죄부를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아직도 그때의 수치스러운 기억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 목사 교인의 특수 관계를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지만 한국 교계에는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더 이상 목회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주면 안 된다. 목사 권위를 이용해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이에게는 목사 자격이 없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권한이 없다. 교회 내 성폭력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교단은 교단대로 인식을 변화하는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 커리큘럼 개발에 주저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특히 여성들이 더 주체적으로 나서 더 이상 교회에서 성폭력으로 희생되는 이들이 없길 바란다. 

# 풀뿌리 시민차원의 동아시아 평화를 만드는 한일 여성들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2016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주에서 한일YWCA 협의회가 열렸다. ‘한일 여성이 만드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Women Creating East Asia Peace Network)’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모임에는 15명의 일본 대표와 18명의 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1974년 시작된 한일YWCA협의회는 올해 9회를 맞았다.

이 모임의 목표는 불행했던 두 나라의 과거에 대한 공동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일YWCA 여성들이 시민의 수준에서 평화와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014년 1월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8회 한일YWCA 협의회 주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일YWCA의 협력’이었다. 그 모임에서는 동아시아 평화구축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여성의 관점에서 풀뿌리 차원의 평화운동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군사기지와 관련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해결과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양국 YWCA가 긴밀하게 연대하기로 결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통전적 평화를 위한 코스모폴리탄 연대

8월 22일 아침에 한국YWCA가 준비한 예배로 일정을 시작했다. 후쿠시마 피해주민들, 종군 위안부들, 오키나와 피해 여성들이 겪은 고통을 함께 묵상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어서 여성신학자 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학교 교수의 ‘통전적 평화를 향하여’(Toward a Holistic Peace)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들었다.

통전적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 약자나 주변인들의 희생을 딛고 얻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그리고 ‘정의 일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여러 차원의 ‘구체적인 정의’가 있을 뿐이다. 평화를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도처에 권력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력관계 속에서 약자와 주변인들이 어떠한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지, 어떻게 배제되고 은밀하게 희생을 강요당하는지 그 복잡한 기제를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하다. 현실을 잘 볼 수 있는 이론을 가져야 불의와 차별을 더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전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이념이나 입장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도 필요하다. 자신의 틀을 넘어서 이질적이고 이해하기 힘들고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이방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환대’가 평화를 만든다. 언어, 민족, 인종, 국적, 종교, 계층, 능력의 차이 등 모든 ‘다름’을 뛰어 넘어 정의, 평화, 생명 가치가 우선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는 ‘코스모폴리탄 연대’야말로 가장 기독교적인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강연에 이어 원폭피해자의 증언이 있었다. 원폭 피해자 환우회 회장인 한정순씨는 피해자 2세로 고통을 겪다가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운동가가 된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통과된 원폭피해자 특별법은 그 적용 범위가 이제는 거의



참가자들이 폐회예배에서 '사랑의니눔 있는 곳에'를 부르고 있다.

사라져 가는 피폭1세대 피해자에게로 국한돼 정작 앞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피폭피해 2, 3세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 풀뿌리 차원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양측 국가별 보고에서는 2014년 한일YWCA협의회 공동성명에 밝힌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양국 YWCA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발표했다.

일본YWCA측은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지역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면서 국가 차원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풀뿌리 차원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숙고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 세계 제일의 발전량을 가진 미즈비시 핵발전소가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뒤에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 싸움은 이 거대한 힘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럴수록 시민 차원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YWCA측에서는 울산, 부산 등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핵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한일YWCA 여성들이 함께 역사를 쓰는 일도 의미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월성 핵발전소 지역 방문 후 주민들과 함께

둘째 날인 8월 23일은 일본YWCA 측이 준비한 아침 예배로 시작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그들이 느끼는 깊은 고통과 불안,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예배 후 공동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만들기 위해 조별로 토론을 진행해 공동선언문을 작성했다.

일본YWCA 참가자들은 그날 오후부터 시작된 한국YWCA 전국회원대회에도 참석했다. 8월 24일엔 월성 핵발전소 지역을 방문해 그 곳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들의 고통에 귀기울였다. 공식 일정이 진행되는 틈틈이 한일 참가자들은 안압지, 침성대, 불국사, 문무대왕릉 등 문화유적을 방문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번 한일YWCA협의회는 양국 정부가 현안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양국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부 민간 기독교여성단체인 한일YWCA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 시민사회 의견을 대변하고 나누고 교류하면서 풀뿌리 시민차원의 동북아 평화질서를 모색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한일YWCA 대표들은 얼굴을 마주하고 각자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입장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제9회 한일YWCA협의회 ‘한일 여성이 만드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성명’

2016년 8월 21일에서 25일까지 한국YWCA와 일본YWCA는 한국의 경주에서 제9회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한일 여성이 만드는 동아시아 평화네트워크’ 라는 주제 아래 우리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의 평화를 위해서도 전쟁방지와 핵문제가 중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미래 평화를 위해 공동의 과거사 인식이 필요함에도 동의하였다.

과거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에 평화를 해치고 피해를 입혔으며 남북한은 분단 상황에서 군비경쟁을 계속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요소가 되어왔다. 다른 한편 한일 양국은 핵발전 위주의 전력생산 체제를 유지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일 양국의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군사기지나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과 안전, 복지와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실현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 사명임을 고백한다. 그것은 불의, 불법, 불공정, 폭력이 지배하고 억압과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구조의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여성의 관점에서 전쟁과 핵이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동아시아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행동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1.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 1-1. 일본 평화헌법 개헌 반대를 위해 연대한다.
  - 1-2.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연대한다.
  - 1-3. 오키나와와 한국의 미 군사기지가 동아시아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연대하여 감시한다.
2. 전쟁과 핵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 2-1.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한일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에 동참한다.
  - 2-2. 후쿠시마 핵발전소 피해자들의 고통에 동참한다.
  - 2-3. 한국의 사드 배치 예정지역,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 송전탑 부근 지역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귀기울이고 고통에 동참한다.
  - 2-4.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과 정당한 배상을 함께 요구한다.
  - 2-5.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유엔 결의안 1325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엔에 요구한다.
  - 2-6. 한일 양국에 설치된 미 군사기지 지역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과 민간인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해 연대한다.
3. 전쟁과 핵문제에 관한 정책 결의에 여성과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권한을 강화 한다.
  - 3-1. 여성들이 안보와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만든다.
  - 3-2. 양국 YWCA가 협력하여 여성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3-3. 청소년들에게 전쟁과 핵의 위험성을 알려서 그들이 평화를 만드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핵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생산체제의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 4-1. 2015년 제28회 YWCA 세계대회에서 채택한 ‘핵에너지와 핵무기 반대’ 한일YWCA 공동결의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4-2. 기존의 소비주의 생활양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생명존중의 생활양식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 한일YWCA협의회 참가자 일동은 위의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8월 23일  
한일YWCA협의회 참가자 일동

## 다음 세대가 나선다 여름방학에 펼친 청소년 탈핵캠페인

2014년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이 시작하면서 7, 8월 여름방학엔 청소년 탈핵캠페이너들의 참여로 캠페인 현장 열기는 더욱 뜨거워진다. 이번 119차(7월 26일), 120차(8월 2일), 121차(8월 9일), 122차(8월 16일), 123차(8월 23일) 캠페인에도 모두 45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법 청원 서명을 받았다.



# ‘핵’이 있는 한 안전할 수 없다

일본YWCA가 주관하는 2016 히로시마 순례가 8월 9일(화)~12일(금)까지 '히로시마에서 후쿠시마, 그리고 세계로(From Hiroshima to Fukushima and to the World)'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YWCA에서는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문윤희 총무와 정성민 위원, 배유미 연합회 간사가 참석했다.

문윤희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총무, 안양YWCA 회원

##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한국피해자 4~5만명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것이다. 2016 히로시마 순례(Pilgrimage to Hiroshima 2016)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히로시마 피폭자와 한국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 무지한 채 살았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눈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값진 경험을 했다.

많은 이에게 고통을 안겼던 히로시마 원폭 사태는 축소되고 가려진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히로시마 원폭 사건은 우리나라에 광복을 가져다준 사건으로 부각되고, 참혹한 상황은 간략하게 다뤄진다. 그 피해 중에서도 일본인 피해자만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히로시마 순례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에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4~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인 피폭자가 겪은 피해와 심각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히로시마 원폭은 일본 정부의 언론통제로 히로시마에 있던 사람들도 이를 잘 몰랐다고 한다. 일본인 사이에서도 알지 못하는 피해였는데, 당시 심각한 차별을 받았던 한국인들의 외로움과 비참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일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시체는 치워지지 않은 것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는 ‘죽어서도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폭탄이 광복을 가져왔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게 마땅한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피폭자들은 피해를 말할 수 없던 분위기였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조국에서도 소외를 당한 것이다. 원폭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된 전쟁의 참혹함과 고통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아픔이라 느꼈다.

## 원폭투하가 진짜 ‘광복’을 가져다주었을까

일본인 참가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일이 대다수며 그 정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한 참가자는 미디어에서 조선은 나쁜 의미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차별을 하고 있었고, 나아가 ‘전쟁은 나라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부족한 역사교육과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교육은 히로시마 원폭 사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가 우리나라에 광복을 가져다준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시 일본은 전쟁에서 사실상 패전한 상태로써 공식적으로 패배를 알릴 날짜를 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은 핵폭탄의 실험(to observe the effects of the bomb)을 위해 이 기회를 이용했다. 즉, 원폭이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정당화한 것이다.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기 위해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한국인 원폭피해자 증언

강행했다. 히로시마를 제외한 주변 지역에는 폭격을 가했으나 히로시마는 온전히 유지했다. 계획적인 실험이었다. 원폭 투하 때 히로시마에 가득했던 부대와 군사시설은 비어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들에게 전가됐다.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인 사실만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일본인 참가자들의 생각을 들었다. 어느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이 피해국인 동시에 가해국이고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는데, 참가자들의 생각이 변한 것을 느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반성하고 학습하여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핵발전소가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평화의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다. ‘핵무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계속 태우자’라는 반핵을 상징해 지구에서 핵이 사라지면 ‘평화의 불’을 끌 것이라고 한다. 또한 원폭 희생자의 이름이 적힌 위령비에는 ‘편히 쉬십시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비문이 적혀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




일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는지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핵무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원자폭탄의 피해보다 더 큰 것이 핵발전소에 의한 피해다. 핵발전소는 핵폭탄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오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

핵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위력과 피해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사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다양한 탈핵운동을 펼치고 있는 YWCA 활동이 얼마나 뜻있는 일인지 깨닫게 된다.

피해자들에 공감하며 그들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짧은 지각을 조심해야 한다. 큰 피해와 아픔을 가져온 일련의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잘못된 행위에 민감해야 한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도록 노력하며 모든 상황을 주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히로시마 순례를 통해 YWCA 프로그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 참여자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한명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움직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YWCA 운동의 뿌리는 사회복지 - 황에스더, 최용신의 농촌계몽 운동이 시작

김태연 한국YWCA연합회 복지사업단 팀장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8월 30일, 2016년 YWCA 사회복지기관 직원연수가 순천 사회적기업 해피락에서 1박2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사회복지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재가복지시설, 자활시설 등 15개 기관으로 모두 96명이 참석했다.

2년마다 열리는 사회복지기관 직원연수의 올해 주제는 'YWCA 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였다. 서울, 경기, 인천, 청주, 대구, 부산, 통영, 순천 등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출발한 직원들은 첫째 날 오후 1시 여는 예배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이 'YWCA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한국YWCA 운동의 뿌리는 사회복지고, 그 사회복지 운동이 한국 사회복지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 요지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YWCA 운동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YWCA 사회복지운동 선구자 황에스더, 최용신

19세기 후반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외국 선교사들은 선교활동으로 처음에는 교육과 의료사업을 펼쳤다. 이때 선교사들의 영향이 한국YWCA의 출발이 되었다. 한국YWCA를 설립한 1922년은 일제강점기로 민족 암흑기 시절 청년 지식인들은 민족운동, 농촌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당시 여성청년과 여성 지식인들의 민족 수난기를 함께하면서 계몽운동에 뛰어들었는데 YWCA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

특히 한국YWCA 복지운동의 효시는 여성독립운동가이자 농촌계몽운동가로 YWCA 창립을 주도하고, 4대 회장을 지낸 황에스더(황애덕) 선생이다. 1920년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황에스더 선생은 협성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YWCA, YMCA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농촌운동에 불을 댕겼다.

이때 소설 '상록수' 모델로 유명한 최용신 선생이 황에스더 선생에게 감화를 받아 농촌운동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황에스더 선생은 당시 최용신에게 농촌에 직접 들어가 현장에서 활동할 것을 적극 권유했고, 최용신 선생은 샘골마을(경기도 안산)로 가서 농촌계몽운동에 뛰어든다. 황에스더 선생이 YWCA 사회복지운동의 선구자라고 한다면, 최용신 선생은 지역 사회복지운동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복지지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복구사업으로부터 시작해 박정희 정권에서 관련 정책이 수립되었다. 1980년 이후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복지 재단과 위탁시설이 급증한다. 그러나 민간 시민운동으로 시작한 농촌계몽운동과 탁아소 운영이 사회복지의 진정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 실천은 정의로운 운동이다

유 사무총장은 YWCA와 사회복지 운동의 관계를 YWCA 목적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YWCA 목적은 삶에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 실천이 목적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그런 차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이 YWCA 운동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지 토론하고 있다



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YWCA 사회복지 운동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역현장이 바로 실천현장이고, 사회복지 뿌리가 운동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운동이며, 운동의 핵심은 정의를 이루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유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우리 사회를 위한 올바른 가치를 구현하는 정의로운 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서는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총장은 YWCA 운동 자체가 사회복지 운동이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신념을 갖고 현장에서 일할 것을 당부했다. YWCA 운동의 뿌리이자, 뿌리를 이어가는 것이 사회복지 운동이므로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에서 실천은 더욱 뜻깊은 하나님나라 운동이 될 것이라고 유 사무총장은 말했다.

## YWCA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과제는 '소통'

이후 연합회 실행위원인 김은경 세종리더십 원장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YWCA 중점운동 과제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 것인지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탈핵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청년, 돌봄정의로 구성

된 5대 중점운동 실천방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에서 참가자들은 ▲Y공동체 마을 만들기 ▲에너지개발 연구소 설치 ▲Y인을 대통령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Y당과 Y대표의원 선출 ▲연예인이 펼치는 친환경에너지 캠페인 ▲핵발전소를 대신할 대체에너지 발전소 세우기 등 재미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몸으로 배우는 '틀 깨기 게임'도 이어졌다. 처음엔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으나 한 조가 출발하자 나머지 조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따라했다. 결국 시간에 쫓겨 남을 따라한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 YWCA는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가라는 되물음으로 워크숍이 마무리됐다.

다음엔 기관별로 5대 중점운동을 표현하는 공동체 활동이었다. 참가자들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에서 다양한 자연, 신체 등을 활용해 사진을 찍으며 창의적인 표현으로 중점운동을 연출했다. 일정이 끝난 뒤 "사회복지 하기 힘들죠.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라는 한 참가자 이야기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공감의 시간, 이번 연수의 또다른 결실이지 않았을까. 

# “YWCA 기독교성과 청년성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2016년 '원로에게 듣는다'는 회원YWCA 원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코너다. 이번 호에서는 최숙자 부산YWCA 증경회장을 성인심 부산YWCA 사무총장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리 : 편집실)



## 최숙자 부산YWCA 명예이사 약력

- 1983~1992 부산YWCA 사회문제부 위원
- 1993~1997 부산YWCA 사회문제부 위원장
- 1998~2015.1 부산YWCA 시민운동부 위원
- 1987~2015.1 부산YWCA 이사
- 1990~1992 부산YWCA 서기
- 1997~2000 부산YWCA 부회장
- 2001~2004 부산YWCA 회장
- 2003~2015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 2006~2009 한국YWCA연합회 서기
- 2005~2015.1 부산YWCA 복지사업단위원회 위원장
- 2007~2015.1 부산YWCA 건축관리 및 건축위원회 위원장
- 2013 부산YWCA 공천위원회 위원장

- 귀한 시간 내어주어 고맙습니다. 1983년 YWCA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 YWCA 일이라면 언제든 앞장서고 있는데, 처음 인연은 어떻게 되는지요.

“1983년 같은 교회를 다니던 당시 부산YWCA 회장인 백경숙 권사가 위원으로 활동하자고 권유하셔서 사회문제부 위원으로 시작했어요. 그전에 대학 시절 서울YWCA에 꽃꽂이를 배운 적이 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친정어머니가 1960년대 초반 YWCA 활동을 하셔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1960년대부터 YWCA 활동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 5대째 뿌리 깊은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부산YWCA 사회문제부 위원으로 출발해서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신앙인으로서 YWCA 시민운동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문제부 위원을 시작한 1980년대는 공해문제, 수질문제, 민주화 문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었어요. YWCA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려고 하니 우리를 급진세력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회문제를 이슈화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란 YWCA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YWCA 목적이 좋고, 활동이 너무 좋습니다.”

- 부산YWCA는 생명살림 운동으로 일찌감치 생협을 연구, 조직했습니다. 특히 회장님 재직 기간에 생협 설립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는데 생협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는지요.

“1980년대 수질과 공해문제가 대두되면서 화학농업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어요. 사회문제위원회에서 무농약 농법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생협 선진조직인 일본 그린코프 생협을 직접 다녀왔어요. 이후 우리도 생명살림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처음 3, 4년은 무농약 굴 등 몇 가지 농산물을 거래했는데 모양도 안 좋고 맛도 없었어요. 판매가 잘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남은 것을 저희들이 집에 가져갔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것만 가져오냐고 하더라고요(웃음). 그게 출발이 되어 저-무농약 단계를 거쳐 유기농까지 이르렀어요. 부산YWCA 생협운동의 단초가 되었어요. 유기농으로 전환될 때는 정말 반갑더라고요.”

## 건강한 먹거리 운동, 생협의 시작

- 부산YWCA 위원과 이사를 거쳐 제28, 29대 회장을 역임했는데요, YWCA와 함께한 34년 세월 동안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부산YWCA 회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을 지냈어요. 이때가 조금 힘들었어요. 처음 3년은 임원회 서기를 맡았는데 연합회 내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1주일에 많게는 두세 번씩 부산에서 서울로 회의를 다니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연합회 회장님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지혜롭게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YWCA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 YWCA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오면서 본받고 싶은 지도력은 어떤 분이었는지요.

“부산YWCA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여러 회장님을 모시고 이사회를 했어요. 회장님들이 다 훌륭하지만, 유급종 회장님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탁월한 사회 능력과 함께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고 뒤가 전혀 없는 깔끔한 지도력이었어요. 또한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모두가 저한테 도전을 주십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분들인데 인화력과 후배를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저는 사실 YWCA 선배님들이 좋아 YWCA 운동을 하는 점이 큼니다.”

- 올해로 부산YWCA는 창립 70주년을 맞았고, 한국YWCA는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YWCA가 100년을 바라보며 꼭 붙잡고 가야 한다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YWCA 목적문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에요. 무엇보다 목적문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책을 결정할 때 목적문에 부합하게 내리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을 해도 YWCA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 바른 사업이 될 것이고 그것을 잃으면 바깥 세상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하다고 봐요. 특히 놓쳐서는 안 될 것은 YWCA 기독교성과 청년성입니다. YWCA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성이 빠진 일을 하면 YWCA 존재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기보다는 본질에 충실한 YWCA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절망 속의 '희망'을 보여주다

## - 빈민지역에서 창립 110주년 맞는 휴스턴YWCA

단일인종으로 구성된 한국 환경과는 달리 백인 20%, 히스패닉 40%, 흑인 25%, 그밖에 아시아계와 혼혈 등 다양한 인종이 참여하는 YWCA는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면서 텍사스 주에서 가장 큰 도시 휴스턴에 자리잡은 휴스턴YWCA를 찾았다.

김은영 한국YWCA연합회 간사

###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밥'을 나르는 사람들

휴스턴YWCA는 인종차별 철폐와 여성역량 강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정의, 평화,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 1907년에 창립되었다. 기금 모금을 담당하는 10명의 이사, 행정을 맡고 있는 12명의 직원과 지역센터를 담당하는 11명의 파트타임 센터장, 독거노인을 위해 따뜻한 밥을 배달하는 23명의 운전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YWCA is On A Mission'(한 사명을 가진 YWCA)라는 공동 표어를 갖고 호화로운 동네를 뒤로 하고 빈민이 밀집한 지역에서 창립 110주년을 맞는 휴스턴 YWCA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YWCA이며, 이 곳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고백하는 휴스턴YWCA 프로그램 총괄 론다 제임스(Rhonda James) 국장을 9월 1일 휴스턴YWCA 사무실에서 만났다.

###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휴스턴YWCA 중점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휴스턴YWCA는 9세 소녀부터 90세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 교회, 학교와 연대활동을 통해 휴스턴 지역 여성, 소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휴스턴YWCA가 위치한 곳은 실직자 등 극빈계층이 많고, 대부분 흑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스턴YWCA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여성과 청년소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9세부터 14세 소녀들을 위한 과학기술, 수학체험 학습으로 발레로에너지, 제록스, 애플과 같은 대기업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멘토링, 소그룹 세션, 기술교육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과 소질 있는 소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미래 직업선택과 진로를 지도해주는 시간입니다. 현직에 있는 엔지니어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녀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여성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만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가게 됩니다.

또한 12세부터 18세 사춘기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Youth Empowerment Program)에서는 올바른 교우관계와 요령, 10대 임신 대처법과 HIV(인간면역결핍증바이러스)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흑인 여성 사이에서 심각한 건강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유방암에 대한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미국계 흑인들이 상대적으로 어린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암 전이 상태가 다른 인종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경향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방암으로 인한 흑

인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YWCA가 보고받은 결과 중 가장 어린 유방암 진단자가 17세였던 것만큼 미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조명받고 있으므로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지역 젊은 여성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지식, 증상, 대처 방법 등을 전문강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휴스턴YWCA는 오는 10월부터 여성·소녀 노숙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아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위탁시설에서 퇴소할 나이(18세 이상)가 되어 더 이상 시설에 머물 수 없는 소녀들이 찾아올 수 있는 주택시설입니다. 텍사스 주가 청년 노숙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기금을 통해 이들은 2년제와 4년제 대학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원하면 대학원, 박사과정까지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YWCA 기숙사에 입주하는 18세 이상 여성들은 먼저 대학 입학 준비를 포함한 구직, 면접훈련을 합니다."

### 청소년, 청년여성 인생의 'Golden Ticket'

- 프로그램 운영으로 얻은 결실과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점부터 말하자면, 힘든 환경에서 자라난 청소년 혹은 청년 여성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고 학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대학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이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Golden Ticket'(황금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대다수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춘기 소녀들이 휴스턴YWCA에서 유방암에 대한 건강교육을 받고 있다.

반면, YWCA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이 변하고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전진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가 가장 큰 기쁨이며 결실입니다. 이들을 위해 YWCA는 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후속관리 프로그램인 졸업생 프로그램(Alumni Program)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취업준비 훈련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인 STEM 탐구나 Youth Empowerment camp(청소년 역량강화 캠프) 연사로 직접 참여해 후배들에게 경험담을 나누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을 적극 맡는 모습을 볼 때 가슴 벅찬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YWCA에 당부가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YWCA간의 연대는 소속 YWCA 발전을 위해서, 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각기 다른 관점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휴스턴YWCA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국YWCA 활동가들, 회원들을 만나볼 것을 기대합니다."

# 여성의 생애, 영화로 말하다

## - 2016년 고양여성영화제 화제작

조진화 전 고양YWCA 영화전문강사, 영화나눔협동조합 이사장

여성의 삶을 영화를 통해 다각도로 보여주는 고양여성영화제가 올해로 6회를 맞았다.

경기 고양시 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해마다 시민들의 열띤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6년 고양여성영화제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영화나눔협동조합 씨네클럽, 고양영상미디어센터와 연대해 고양YWCA가 영화제를 기획하고 주관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성의 생애 주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고민과 주제는 무엇인가, 그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 영화는 무엇인가 등을 고민하면서 8편을 상영했다.

녹록치 않은 예산에도 다양한 나라와 계층, 장르별 영화를 통해 한국 여성의 삶이 가진 나름의 궤적이 짙어지기를 희망하며 작품을 선정했다.

범주는 ▲감독 의도와 작품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감독과 만나는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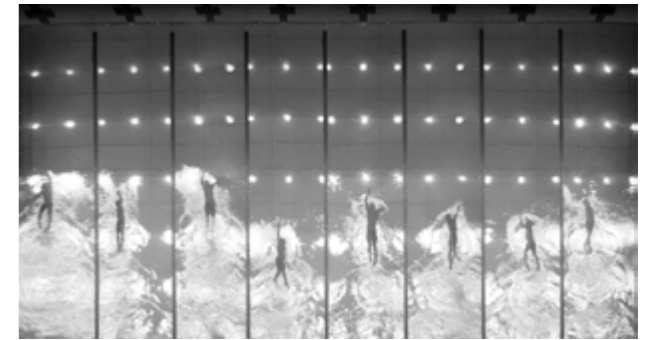
▲혼자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영화 의도에 접점을 찾아보는 시간-혼자 보는 영화 ▲해설을 들으면서 좀 더 다양하게 영화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켜 보는 시간-해설이 있는 영화로 나왔다. 일상의 폭력을 성찰한 <4등>과 여성의 생애를 그린 화제작 4편을 소개한다.

### ‘1등주의’ 일상의 폭력을 성찰하다 : 4등(4th Place)

정지우 감독, 116분, 15세 관람가, 한국,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열두 번째 인권영화 프로젝트로 제작된 영화로 <생강>, <해피엔드>, <은교> 등을 만든 정지우 감독의 최근작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욕망, 금기 등에 관해 직설화법으로 묻곤 했던 감독이 이번엔 1등 콤플렉스를 조망한다. 그리고 1등 콤플렉스를 완결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 행사에 대해 묵직하게 질문한다.

영화 줄거리는 간략하다. 한때 국가 차원의 보배였지만 교만과 태만으로 실패한 현재를 사는 전직 국가대표 출신 수영코치, 대회만 나가면 4등을 하는 아들 준호, 아들의 결과를 답답하게 지켜보는 엄마 정애, 늘 방관적 입장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성공에 대한 열망을 떨치지 못하는 아빠 등이 영화를 끌어가는 주인공들이다.



대회만 나가면 4등을 하는 준호 이야기를 다룬 영화 <4등>

영화는 만년 4등인 아들과 함께 ‘엄마’라는 이름의 ‘여성’에 주목한다. 그녀는 아들의 ‘4등’이라는 등수에 견디지 못한다. 4등을 한 준호에게 “그런 식으로 살아서 인생 어떻게 살래?”라는 질타로 대응하는 그녀는 어느 날 아들을 위해 등수를 올려줄 코치를 구하게 된다. 엄마는 “코치 때문에 상처 입을 것”이란 경고에도 “그 상처, 메달로 가릴 거예요”라고 응수한다.

새 코치에게 맹훈련을 받은 준호는 다음 대회에서 ‘1등’과 별 차이 없는 ‘2등’을 하게 되고 이제 1등을 향한 엄마의 욕망은 가열차게 시작된다. 바로 그때 1등을 위한 코치의 폭력이 드러나고 영화는 긴장을 더하게 된다.

인생을 운동경기에 대응하자면 장거리 수영이자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삶든 좋든 그 시험의 대열에 서야 한다. 장거리 경기는 힘의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장거리 경기는 완주가 중요하다. 우리가 마라톤에서 1등과 꼴찌에게 거의 유사한 무게의 박수를 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의 결과인지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1등이 되기 위해, 혹은 모두가 1등을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 총이 울리면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달리기 시작한다. 1등만을 위해 뛰다. 그 속에서 희생되는 것은 뛰는 당사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조력자 모두다.

영화 <4등>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수영을 시키는

학부모 ‘정애’는 인생 전체를 자식에게 건 30대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온전히 자식을 위해 헬리콥터 맘을 자청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치유가 어려운 폭력에 내동댕이쳐진다. 결과적으로 아이도 그녀도 모두 피해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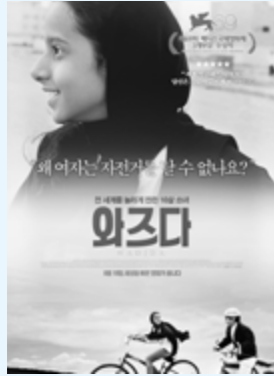
영화는 내내 우리에게 1등을 지향하는 사회가 가진 무언의 폭력성과 그 속에서 저물어가는 많은 희생을 말하고 있다. 알면서도 행사하고, 모르면서도 행사하는 폭력의 다양한 이름,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최고기록’ ‘명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폭력의 다양한 모습에 우리는 그 폭력에 동참한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목도하게 된다.

영화 <4등>은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 엄마라는 여성의 삶과 일상을 조망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부모로서 삶, 학부모로서 삶 중 이제는 하나의 선택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언급한다.

타인에게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삶. 영화 속 우리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혹 그 갈등의 기로 어디쯤인가 서 있다면 이 영화를 추천한다. 쉽고,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영화다.

## 10대부터 노년까지 : 여성의 삶과 일상

### 와즈다(Wadja)



하이알 만수르 감독, 98분, 전체관람가, 사우디아라비아, 2012년

영화가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 첫 영화이자 사우디아라비아 첫 여성감독 작품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여성의 문화활동도 안되고, 자유연애도 금지된 나라.

여성이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상 최초로 자전거를 탄 10살 소녀의 유쾌한 반란을 담았다.

이 영화로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전거와 전동 사륜차를 즐기도록 법이 개정됐다. 베니스영화제 3개부문 수상을 비롯해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밴쿠버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휩쓸었다.

### 소꿉놀이(come to playhouse)



김수빈 감독, 97분, 전체 관람가, 한국, 2014년

제10회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작으로 올해 영화제에서 관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작품이다.

기존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출산과 육아라는 가법치 않은 주제를 감독 특유의 발랄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풀어냈기 때

문일 것이다.

‘세 살 땀 몰랐던 스무 살의 소꿉놀이’라는 소제목답다. 준비되지 않은 혼전임신으로 인한 출산과 육아, 어찌 보면 진부한 소재를 경쾌하면서도 동시에 진지한 화두를 던진 영화로 평가받았다.

### 클라우드 오브 실즈마리아(Clouds of Sils Maria)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 124분, 15세 관람가, 스위스 외, 2014년

칸이 사랑하는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수작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세 여성배우(클로이 모레츠, 줄리엣 비노쉬, 크리스틴 스투어트)의 잔잔한 연기를 탐색할 수 있다. 연극과 실제의 경계를 흥미롭게 그려낸 작품으로 깊이 있는 연출력도 높이 평가받았다.

한 40대의 여배우가 과거 영광을 놓지 못하고 머무르다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담았다. 20대와 중년 여성의 삶, 배우로서 욕망과 사회 권력관계, 동성애 등 다양한 갈등을 수준 높게 처리했다. 다시 챙겨 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영화다.

### 아무르(Love)



미카엘 하네케 감독, 127분, 15세 관람가, 프랑스 외, 2012년

2012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우리와는 또 다른 노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로 작품 전체를 압도하는 세 거장(감독 미카엘 하네케, 배우 장 루이 트린티냥, 배우 엠마 누엘 리바)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노년의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영화 속 은유는 불친절하지만 만약 그 깊이 있는 은유를 이해하고 본다면 인생에 꿈을 만한 수작이라 할 만하다.

## 연합회 소식 9월

### 9월 월례 아침 기도회



9월 YWCA 월례 아침 기도회가 9월 8일(목) 오전 9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강담순 목사(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 브라이튼신학대학원)가 ‘예수의 시선을 따르는 지도자들’(마태복음 9장 20~22절)이라는 제목으로 “YWCA 지도자들은 소외되고 주변화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순 연합회 은학의집 운영위원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 북부지역 '여성주의 평화운동' 워크숍



생명비전연구소 주최로 동해YWCA에서 북부지역 여성주의 평화운동 연구워크숍이 7월 25일(월) 열렸다. 북부지역(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 자원 활동가와 실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한영수 부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위원들과 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여성주의 평화운동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YWCA 평화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했다. 또한 패넌과 함께하는 ‘평화 토크쇼’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는 평화이슈는 무엇인지, 내 삶에서 평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을 벌였다.

### '사드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각계각층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평화통일위원회는 YWCA 평화운동 방향을 세우고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자 7월 26일(화) 간담회를 열었다. ‘사드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강연에 이어 최만자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기독교 여성의 눈으로 본 사드배치’를 내용으로 토론했다. 회원YWCA와 연합회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 북한어린이돕기 홍보영상 제작



평화-통일위원회는 북한 핵개발에 따른 정세변화와 대북제재 강화로 축소된 인도주의 민간지원의 뜻을 되새기며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새로운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한 교회용과 YWCA 부속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한 버전으로 각각 제작된 홍보영상은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회원YWCA는 ‘민들레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특히 어린이집 버전의 홍보영상은 통일부 허가를 받은 ‘뽀로로’ 캐릭터를 활용, 어린이들의 평화와 나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YWCA는 제3의 경로를 모색하여 북한 어린이들에게 기부자들의 귀중한 사랑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Y-틴 지역별 회원대회**



전국 Y-틴이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지역별 회원대회를 열었다. 중부지역(7월 16일), 동부지역(7월 29일), 서부지역(8월 5일), 북부지역(8월 13일)에서 300여 명의 Y-틴 회원, 50여 명의 지도자와 지도교사들이 참가한 이번 회원대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주제를 갖고 다양하게 접근했다. 중부지역은 그룹별 워크숍으로 중점운동을 깊이 이해했고, 동부지역은 사람과 역사를 통해 평화를 알아가며, 서부지역은 청소년 인권의 시각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북부지역은 거리캠페인과 플래시몹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Y-틴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면서 청소년 Y지기로 걸음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Y-틴 대표간사,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 참석**



전국 35개 Y-틴 간사를 대표해 4부 지역 대표간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8월 30일(화)부터 31일(수)까지 연합회와 서울 시내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대표간사들은 YWCA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등재단체 선정에 따른 현장의 효용성과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특별히 2016년 Y-틴 중점운동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의미를 체감하고자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관)에 직접 참여했다.

**전국회원대회 준비기도회**

'2016 YWCA 전국회원대회' 준비기도회가 8월 8일(월) 오전 11시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천진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전국회원대회 운영위원과 연합회 실무자가 참석했다. 전국회원대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YWCA 100주년 비전과 희망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다.

**NCS 가사지원분야 학습모듈 개발사업 최종 보고회**



8월 17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NCS 가사지원분야 학습모듈 개발사업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YWCA 내·외부 전문가 집필진과 검토진 15명이 수차례 워크숍과 검토과정을 거쳐 학습모듈 결과물을 완성했다. 학습모듈 개발사업은 지난해 개발된 NCS 가사지원분야 표준안을 토대로 현장에서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도록 첫 교재를 개발하는데 의미가 있다. 학습모듈 자료는 올해 10월부터 NCS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국YWCA UN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 획득**

한국YWCA가 7월 25일(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정분야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했다. 2014년 신청 뒤 유엔 NGO위원회 심사를 수차례 거친 끝에 2년 만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YWCA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개발협력포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와 같은 위원회, 지역위원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UN 국제행사와 회의에서 서면의견서, 구두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UN 주관 NGO행사 조직과 유엔 시설 출입, 다른 단체와의 교류 등을 할 수 있다. ECOSOC은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약자로, 양성평등과 여성발전 정책을 결정하는 유엔 국제기구다.

**2016 세계연합감리교 여성성직자모임**



8월 29일(월)부터 9월 2일(금)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연합감리교 여성성직자모임(2016 Global United Methodist Clergywomen Gathering)에 한국YWCA가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ONE : Birthing a Worldwide Church'란 주제로 열린 이번 모임은 연합감리교회 여성 목회자 안수 60주년과 집사 안수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5년 만에 열렸다. 감리교회를 이끄는 세계 여성지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다. 연합회 박은실 국장과 김은영 간사가 참가했다.

**2016년 YWCA 복지기관 직원연수**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로 이루어진 YWCA 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직원연수가 8월 30일(화)부터 31일(수)까지 순천 해피락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는 YWCA 5대 중점운동 이해를 통해 복지사업 현장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의 특강과 김은경 실행위원이 진행한 워크숍, 조별 공동체 활동을 통해 YWCA 5대 중점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15개 복지기관에서 94명이 참석했다.

**청년기자단 '러너' 제3차 정기모임**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YWCA 활동을 전하는 청년기자단 '러너' 제3차 정기모임이 9월 3일(토) 연합회에서 열렸다. 8월 활동나눔과 9월 콘텐츠 기획에 이어 '1인 미디어 취재'를 주제로 김정환(미디어몽구) 시사블로거의 특강을 진행했다. '러너' 청년기자단이 취재한 기사는 YWCA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양성프로젝트 종료**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행자리더십 기금으로 운영된 사회복지사 양성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로 연합회 실무자 15명, 회원YWCA 사무총장 1명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행자리더십 기금은 YWCA 활동가 리더십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2016년 통합실무정책협의회**



2017년 YWCA 사업계획 수립과 운동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통합실무정책협의회가 9월 21일(수)부터 22일(목)까지 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특히 성평등운동의 통합기획에 중점을 둔 이번 회의에는 연합회 총괄 실무책임자들과 회원YWCA 성평등운동 실무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YWCA 성평등운동 정책방향과 과제, 사례를 공유하고 회원YWCA 성평등운동 강화를 위한 계획과 추진방안을 세우는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발대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9월 13일 서울역에서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 입법청원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상을 알리면서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소비자단체

협의회(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는 9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0만명의 서명을 받고 입법청원을 위해 국회로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진재해 평가 등 안전성 평가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어 지진 위험 지대에 노출된 노후 핵발전소 월성 1~4호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내용 공개와 가동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한 YWCA를 비롯한 환경·여성·교육 등 8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세상을위한공동행동은 9월 13일과 20일, 국내 최대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위험을 경고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동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



한국YWCA연합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경북 안동시 용상동에서 9월 20일 안동 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용상동은 다문화가정이 밀집된 지역으로, 문화환경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서 아동들이 보육 서비스와 다양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소로 한국YWCA는 제천, 파주, 하남, 논산을 포함 모두 6개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국내 최대 지진에 긴급 기자회견과 성명발표

연합회는 국내 최대 지진 발생 직후인 9월 13일과 20일, 이번 지진은 자연의 경고임을 강조하고 '핵발전소는 더 이상 안된다'며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졸속대책만 내놓는 정부의 무능함과 부실대응을 비판한 뒤 핵발전소 부지 활성단층 조사,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사랑의 세! 세! 세!



강릉YWCA는 8월 29일(월) 홍보출판위원회 주관으로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에벤에셀 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멋진 공연을 하였다.

에서 2016 대학생·청년 평화리더십캠프를 열었다. 서울YWCA 청년활동기금 지원사업으로 평화통일세대를 열어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캠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중국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아동을 위한 교육봉사, 평화통일 특강, 운동주 생가 방문, 백두산 등반 등을 함께한 15명의 청년들은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절감하고 평화 감수성을 깨우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사명을 되새겼다.



동해YWCA 안지원 팀장

평화! 커뮤니티캠프



8월5일(금)부터 6일(토)까지 철원 국경선평화학교에서 Y-틴이 참여하는 '평화! 커뮤니티캠프'를 진행했다. 청소년들이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만들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MZ순례, '폭력과 평화' 강의, 워크숍, 소이산 등반, 한탄강 래프팅을 통해 청소년들의 평화감수성을 높이고, 친구들과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했다.

인천YWCA 김다실 간사

Y-틴과 대학·청년Y가 함께한 '명랑운동회'



인천YWCA는 8월 27일(토) 인천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인천YWCA Y-틴, 대학·청년Y 연합 체육대회인 '명랑운동회'를 열었다. Y-틴과 대학·청년Y, 지도교사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4인 3각, 줄다리기, 농구, 피구 등 경기를 하며 청년, 청소년 회원들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인천YWCA 청년과 청소년 회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2016 대학생·청년 평화리더십캠프

7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4박5일 동안 백두산과 연변

춘천YWCA 육여진 간사

어린이환경사랑학교

춘천YWCA는 다양한 생태체험장을 마련해 환경지킴의 중요성과 환경사랑 실천방법을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어린이 스스

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어린이환경 사랑학교'를 열었다. 7월 23일(토)부터 9월 3일(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초등학생 40명이 참석했다. 인천강화도갯벌, 노원에코센터, 홀로세생태학교,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배바위카누마을 등 방문체험과 EM흙공 만들기, EM발효액만들기, EM비누만들기, 체험액자만들기 등 교실체험으로 진행되었다.

동을 위한 '디딤돌학교' 과정을 이사들과 회원, 지역민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7차례 걸쳐 진행했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필요성, 풀뿌리 여성운동 사례, 성평등 정책과 성인지 예산 등의 강의를 들으며 양성평등한 사고로 전환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의회방청 활동, 시민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 부천YWCA

이지원 간사

### 부천시민 통일음악회에서 부스 운영



제26회 부천시민 8·15 통일음악회가 8월 15일 부천역 광장에서 있었다. 음악회에 앞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부스를 운영하였는데 부천YWCA는 '북한말 퀴즈' 부스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였다. 이번 행사 참여로 부천YWCA의 평화통일에 대한 마음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었다.

## 성남YWCA

전아영 간사

### EM활용교육

성남YWCA는 8월 12일(금), 19일(금)에 걸쳐 회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EM활용 교육과 비누만들기를 진행했다. EM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 활용법을 교육하고, EM발효액과 EM비누를 만들었다. 수강생들은 EM으로 가정위생과 하천을 살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천연비누 재료의 효과와 함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 수원YWCA

정지영 간사

### 수원에코시티 환경투어

수원YWCA는 수원시에 위치한 환경 기초시설과 체험관을 견학하는 '2016년 수원에코시티환경투어'를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1회 35명씩 22회를 실시했으며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결혼이민자 등 730명이 참여했다. 에코시티 환경투어는 자원회수 시설과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 시설, 기후변화체험 교육관 등 9개 환경기관을 매주 탐방하고 있다. 환경보전 실천의 중요성을 배우는 이번 프로그램은 11월까지 모두 42회가 진행된다.



## 안산YWCA

문성은 간사

###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 운영



(주)에드링턴 코리아의 지원으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YWCA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월 23일(화)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료생 중 중학교 졸업학력에 4명이 응시해 3명이 합격했으며, 초등학교 졸업학력에는 14명이 응시해 13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안양YWCA

김순태 간사

###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발표회

8월 8일(월)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열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제안발표회를 진행했다. 제안자로 나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여했다. 넘새나지 않는 쓰레기통, 시장과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만

나는 날 운영, 레고조립행사 개최, 학교 후문 쪽 지하도 난간 설치, 주책가 보안등 설치,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 지원, 청소년 진로체험관 신설, 청소년장터 운영, 자전거도로 확대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다양한 제안이 이뤄졌다.



##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 영동발달 비전박람회



의정부YWCA는 8월 6일(토) 청소년 120명이 자신의 비전을 찾고 미래직업을 체험하는 어울림 마당으로 영동발달 비전박람회를 열었다. 별난나, 별난생각, 별난채용, 별난협업, 체험활동 등 일일캠프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Y-틴과 대학·청년Y가 만든 10가지의 톡톡 튀는 미래직업 체험은 흥미로움을 더했고,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대안을 제시했다.

## 경기

###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 상상으로 그려보는 키다리 에너지자립마을



고양YWCA는 8월 27일(토) 키다리활동 상반기 평가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를 진행했다. 먼저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실천과제 등을 공부했다. 이어 공동체 활동으로 키다리를 스스로가 에너지자립 마을을 만들어 보며 핵산업 문제, 지구환경보호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남양주YWCA

이정은 간사

### 의정지킴이 활동을 위한 디딤돌학교



남양주YWCA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남양주시 의정지킴이 활

중부

논산YWCA 권연정 간사

우리동네 양성평등 리더활동가 자조모임



성인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논산YWCA는 9월 8일(월)부터 '우리동네 양성평등 리더활동가' 자조모임을 시작했다. 논산YWCA는 지난 봄부터 기본, 중급, 심화 과정으로 '우리동네 양성평등 리더활동가' 교육반을 운영해왔다. 앞으로 자조모임 활동가들은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논산시 여성친화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대전YWCA 이다정 간사

Y-틴·대학청년Y 연합워크숍



대전YWCA Y-틴과 대학·청년Y 연합워크숍이 30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8월 6일(토)부터 7일(일)까지 대전YWCA와 동학사에서 열렸다. 첫 연합워크숍으로 Y-틴과 대학·청년Y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소중한 추억으로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평가를 받았다. YWCA 운동을 이해하는 퀴즈게임, YWCA 비전찾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제천YWCA 김미경 간사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핵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7월 1일(금) 고리 핵발전소를 출발한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40여 명이 8월 18일(목) 제천에 도착했다. 순례단이 도착하기 전 제천YWCA는 제천시 중앙로에서 탈핵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탈핵의 필요성과 우리나라가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제천YWCA 회원들과 시민들은 시민광장에 도착한 순례단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며 탈핵 소망이 이뤄지기를 함께 기도했다.



천안YWCA 정상란 간사

평등가족 실천을 위한 '남성요리 교실'

천안YWCA는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남성요리 교실을 연다. 건강한 가족문화조성과 확산을 통해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취지로 마련된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사와 육아는 '엄마의 일'이라는 고정관념과 두려움 극복을 위해 아빠들에게 생활반찬 만들기 체험을 통해 공동가사분담 확산의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청주YWCA 박보람 간사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청년기행

8월 15일(월)부터 17(수)일까지 통일시대를 열어가고 살아갈 청년들의 평화 감수성과 통일의식 향상을 위해 청주YWCA, 인천YWCA 청년 12명이 춘천과 철원 일대를 다녀왔다. 청년들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한반도 평화 이전에 내 안의 평화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안의 평화를 찾는 기행

으로 춘천에서 평화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이후 한반도 분단을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민통선 DMZ 순례, 주제 강연 등을 진행했다.



충주YWCA 김세희 간사

충주YWCA-교토YWCA 청소년문화교류



충주YWCA는 8월 10일(수)부터 13일(토)까지 교토YWCA와 한·일 청소년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충주지역 역사·문화를 돌아보고 청소년들이 꿈꾸는 평화세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일 청소년 38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친목을 다지고 양국 문화를 교류했다. 충주YWCA와 교토YWCA는 '동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청소년문화교류 프로그램을 2년째 이어오고 있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중·고등학생 성인지 교육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 교육자원부가 8월 15일(월) 주희

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서 노성희 광양YWCA 사무총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대상 성인지 교육을 했다. 성인지 교육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각의 성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Y돌봄 재능기부의 날



광주YWCA는 9월 3일(토) 'Y돌봄 재능기부의 날-추석맞이 대청소' 행사를 열었다. 70여 명의 봉사자들이 오전 8시 광주YWCA 대강당에서 집결식을 하고 각 가정으로 출발, 도움이 필요한 광주지역 이웃(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을 포함 26가정)을 방문해 대청소와 반찬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Y돌봄 재능기부 행사는 광주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돌봄과 나눔정신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서부지역 Y-틴 회원대회



서부지역 Y-틴 회원대회가 8월 5일(금) 목포 청소년수련원에

서 열렸다. 지역별 Y-틴 소개를 시작으로 청소년 성문화 체험과 청소년 인권교육을 하였고 공동체 활동으로 다른 서부지역 Y-틴과 교류를 통해 친목을 다졌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포스터 그리기와 퀴즈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목포YWCA 곽수현 부장

### 목포YWCA 추석바자회



사회적경제활성화 전남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목포YWCA 추석바자회가 9월 1일(목)부터 2일(금)까지 YWCA회관 1층에서 열렸다. 많은 회원과 시민들의 호응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 17회째를 맞는 이번 추석바자회에는 목포시민 1,500여 명이 방문해 지역 특산물, 농산물, 즉석김치, EM용품, 패션잡화 등과 전남지역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청소년 장학금,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후원, 북한어린이 분유보내기 등에 쓰일 예정이다.

##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 도서관 축제



서귀포YWCA는 8월 12일(금)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개관 4주년 기념으로 도서관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도서관

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네일아트, 석고방향제 만들기, 가방 만들기 등 체험활동과 리사이클 마당과 플라마켓이 펼쳐져 나눔의 뜻을 공유했다. 아이와 엄마를 위한 책으로 세상이 바뀌고, 더불어 사는 삶이 되기 위해 중앙꿈쟁이도서관은 동네 작은도서관으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할 예정이다.

## 순천YWCA 오은혜 간사

### 청소년 자원봉사자 농촌체험 캠프



7월 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순천 유평마을에서 농촌체험 캠프를 진행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 31명과 지도자 5명이 참석했다. 마을 쓰레기 줍기, 마을 어르신들 머리 염색하기 등 부족한 일손을 도왔고, 미래 소비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생활학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농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여수YWCA 박선주 간사

### 여수 국제청소년축제 체험활동 주관



여수YWCA는 '세계 청소년의 흥, 여수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8월 13일(토)부터 15일(월)까지 여수 일대에서 열린 여수 국제 청소년축제에 참여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EM전연탈취제 만들기, 예코백 만들기, 탈핵 부스 등 5개 체험부스를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을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한 젊음의 한마당을 벌였다.

## 전주YWCA 김은진 국장

### HACCP 소비자 바로알기 현장체험

전주YWCA는 8월 25일(목) 회원 45명과 함께 부안 참프레, 전주대 약고추장으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소비자 바로알기' 현장체험을 다녀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의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이번 현장체험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 제주YWCA 이유리 간사

### The 당당한 노후! 우리손주 친친되기



제주YWCA는 8월 31일(수) 조부모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The 당당한 노후! 우리손주 친친(친한친구)되기' 개강식을 열었다. 201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조부모와 예비 조부모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된 개강식에서는 관계형성과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위한 '실버! 행복한 삶과 웃음'이라는 주제로 김용태 한국산업자력협회 행복발전연구소장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 동부

## 거제YWCA 홍은정 팀장

### 청소년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 진행



거제YWCA 청소년오케스트라는 8월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거제 망치수련원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했다. 단원 30여 명이 참석해 레크레이션 활동과 공동체 게임으로 단원들과 친목을 다졌다. 거제YWCA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달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여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김해YWCA 배정숙 부장

### 초등학생 토요일더샵학교

김해YWCA는 7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10회에 걸쳐 6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슴으로 배우는 토요일더샵학교를 진행한다. 인성교육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전문상담사인 임덕렬 강사에게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대인관계 요령을 배운다. 또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질서의식과 배려를 익히고 있다.

## 대구YWCA 전명진 부장

### 학교밖 청소년 57명 검정고시 합격

대구YWCA가 운영하는 대구남구청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4월 10일과 8월 3일에 시행한 2016년 검정고시(초졸, 중졸, 고졸)에 60명이 응시해 57명(과목합격14명 포함)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기계발과 취업체험 프로그램, 무료건강검진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

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꿈드림을 통해 세상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적극 돕고 있다.

## 마산YWCA 이애라 부장

### 농식품 스마트소비아카데미 진행

마산YWCA는 경상남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농식품 스마트소비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8월 21일(일)에는 스타팜(이령 조청한 과마을)에서 강정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제철농식품과 식량주권'이라는 주제로 식생활 교육도 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레시피 요리교실, 아침식탁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대학생 농활 등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시하였다. 제철 채소, 과일을 이용한 연령별 놀이지도(푸드테라피)를 통해 돌보미들이 아이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현재 심리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을 배웠다.



## 부산YWCA 김수영 간사

### 새터민 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행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부산YWCA는 부산일보와 공동으로 '평화와 통일을 향한 100년'이란 주제로 새터민 청소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화통일기행을 다녀왔다. 새터민 청소년과 한바다중학교 학생 35명이 8월 1일(월)부터 6일(토)까지 국토순례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분단된 한반도의 안타까움을 느끼며,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었다.

## 사천YWCA 정희경 간사

### 아이돌보미 개별보수교육

사천YWCA는 8월 22일(월) 아이돌보미 개별보수교육을 실

## 양산YWCA 박경하 간사

###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공감 특&통'



양산YWCA는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대공감 특&통' 프로그램을 4월 30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격주로 토요일마다 양산시 상북면 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에서 열었다. '세대공감 특&통'은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기초소양교육을 하고, 지역 소외 어르신을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 어르신 말벗하기, 어르신과 함께 천연화장품과 모기퇴치 스프레이 만들기, 오카리나 연주와 마술쇼, 어르신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봉사를 펼쳤다. 마지막 날에는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경북 경주로 추억여행을 다녀왔다. 노인에게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청소년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된 '세대공감 특&통'은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세대간 이해를 높였다.

## 진주YWCA 송광은 간사

### 진주YWCA-후쿠오카YWCA 국제캠프



진주YWCA와 후쿠오카YWCA는 8월 9일(화)부터 13일(토)까지 진주 일대에서 제10회 한·일청소년국제캠프를 열었다. 'Eco Way, Youth Way'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캠프에는 양국 청소년 30여 명이 참가했다. 청소년들은 복지시설 자원봉사로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고, 경남 창녕 우포늪 습지체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와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양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진주YWCA와 후쿠오카YWCA는 자매결연을 맺고 3년마다 한·일청소년국제캠프를 열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 진해YWCA 엄정희 간사

### 인권감수성 훈련

진해YWCA는 진해지역 19개 지역아동센터와 1318청소년자활센터에서 인권감수성 훈련을 진행하였다. 동영상으로 아동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홍보물을 직접 작성해보면서 인권 감수성을 배웠다. 참여한 아동들의 집중도 또한 매우 높았다.

## 창원YWCA 정미영 간사

### 제4회 청소년 토론회

8월13일(토) 제4회 청소년 토론회를 열었다. 창원YWCA는 매년 4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토론회교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논제를 제시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을 여는 청소년 토론회교실'을 주제로 중학부는 '모든 공공시설에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와 고등부는 '여성고용 할당제는 역차별이다'라는 논제로 예선전과 본선전을 통해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



## 포항YWCA 김수영 간사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캠페인



포항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8월부터 포항시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와 감시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7월엔 유해환경에 상시로 노출된 청소년을 위해 매주 2~3회씩 포항시 일대를 순찰하며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과 단속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 유해업소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11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보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9월 · Septem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b>1</b> 사천Y 창립기념일 (1988.9.1.) 제28주년 창립기념예배 순천Y 추석맞이 바자회(~2일)	<b>2</b> 광양Y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MOU체결 제천Y Y아카데미 중부지역센터 실무자연합연수	<b>3</b> 고양Y 키다리학교 광주Y 제4회 재능기부의 날 양산Y 찾아가는 자선공연
<b>4</b>	<b>5</b> NCS 1차 워크숍	<b>6</b> 전주Y 회원증모발대식	<b>7</b> 고양Y 고양시 평생학습원사 간담회 거제Y 청춘노인대학 개강 안양Y '큰 장날' 바자회(~8일) 여수Y 추석바자회 충주Y 충주YWCA 합창단 공연	<b>8</b> 대구Y 중점운동실무교육 대전Y 큰장날	<b>9</b> 수원Y 어르신 현장체험 모심의 날 창원Y 탈핵집중행동의 날 청주Y 청주청년Y의 날	<b>10</b> 순천Y 동아리樂(락)페스티벌
<b>11</b>	<b>12</b> 광양Y 연합봉사	<b>13</b>	<b>14</b>	<b>15</b> 강릉Y 창립기념일 (1988.9.15)	<b>16</b>	<b>17</b>
<b>18</b>	<b>19</b> 남양Y 살림·산모돌봄교육(~23일) 속초Y 상록수학교 개강식	<b>20</b> 동부지역 Y-틴 간담회 광주Y 탈핵캠페인 춘천Y 탈핵캠페인 창원Y 경남YWCA협의회	<b>21</b> 2016 통합실무정책협의회(~22일) 청주Y 로컬푸드 교육활동가 양성과정 개강	<b>22</b> 대전Y 호박농장현장체험 양산Y 찾아가는 문화살롱(~26일)	<b>23</b> 들불임원워크숍(~24일) 북부지역 회장·사무총장 연수 제주Y 평화아카데미	<b>24</b> 고양Y 키다리학교 순천Y 시민합창단 전주Y 2016 남북하나되기 프로젝트 '북한음식 박람회' 진해Y 초록지킴이 환경기자단 포항Y 청소년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체험
<b>25</b>	<b>26</b> 파주Y 창립기념일 (1990.9.26) 남양주Y 돌보미 통합교육 충주Y 회관 이전식	<b>27</b> 전국중경회장 모임(~28일) 수원Y 창립기념일 (1969.9.27) 포항Y 창립기념일 (1979.9.27) 거제Y 찾아가는 씩크머니 교육 남양주Y 농식품 소비자교육 수원Y 태양광 준공식	<b>28</b> 충주Y 살림교육개강	<b>29</b> 동부지역 Y-틴 회원대회 속초Y 회원의 날 (일일 찾집&바자회) 제천Y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 캠페인(~30일) 포항Y 애들아 밥먹자	<b>30</b> 중부지역 Y-틴 회원대회 강릉Y 민들레 나눔장터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위한 YWCA 회원결의문

2016 YWCA 전국회원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전국 52개 회원YWCA 10만 회원과 함께 촉구한다.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라.

한국YWCA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탈핵운동을 시작하여 2015년에는 시민들과 함께 고리 1호기를 폐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만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이 있는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23일 다수호기 안전평가와 대비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표결에 부쳐 이를 승인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추진되면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에는 총 10기의 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는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 피해 반경 안에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더구나 지난 7월 5일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상에서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우리나라 역대 5위의 강한 지진이었으며, 부산, 울산, 양산 등 원전 밀집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발생했다. 원전 밀집 지역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부산과 울산 등 경남지역 뿐 아니라 국가 대재앙, 대참사가 될 것이다. 5년이 지났어도 많은 생명들의 희생이 속출하는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핵발전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에도 전력소비증가율은 각각 2.9%, 3.4%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실재는 1.8%, 0.6%에 그쳤다. 이는 국가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소비 증가율이 실제보다 높게 예측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핵발전을 하겠다는 정책을 반증하는 것이다.

핵없는 사회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길은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함과 동시에 앞으로 신규 핵발전소를 짓지 않는 일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핵발전에서 벗어나 재생가능 에너지로도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국 10만 YWCA회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창조 질서의 보전을 위협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행동을 한다.**

**핵발전소 대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지역에너지 자립을 이룬다.**

**과학기술과 첨단 문명에 기대어 키운 인간의 욕망을 반성하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며, 더 적게 소유하는 소박한 삶을 실천한다.**

2016. 8. 24.  
한국YWCA 전국회원대회 참가자 일동